



르포 / '줄폐점' 용산전자상가 가보니 5



신용상 "가계부채 '총량·속도·질' 모두 문제" 27

<금융피라미드 다단계 사기>

'화장품 방판' 아쉬세븐, 폰지사기 의혹 수사

화장품 방판판매업체이자 상장사 센트럴인사이트의 최대주주인 '아쉬세븐(ASHE7)'에서 금융 다단계 피해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관련기사 3면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쉬세븐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아쉬세븐 조합원 20여 명이 예산과 천안·안양·송파 지부 등에서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아쉬세븐 회원 500여 명도 법무법인 해안과 강남을 선임해 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폰지 사기' (신규 고객 돈으로 기존 고객에게 수익을 주는 돌려막기 사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업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신규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했다고 의심한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사건의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센트럴인사이트 최대주주... 올 4월부터 투자 수익금 지급 중단 투자자 "수천억 피해" 주장에 아쉬세븐 "법원서 따질 문제" 반박

수도 있다"며 "정확한 피해 금액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역대 금융사고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과 소송 참여자들에 따르면 아쉬세븐은 2014년 설립된 화장품 업체다. 전국에 34곳의 지부와 45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의 화장품을 조합원에게 팔고, 이를 다시 위탁받아 판매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처음에는 화장품 실물을 조합원에게 지급했다가 다시 위탁받았지만, 약 5년 전부터는 현물이 오고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판매와 위탁이 이뤄졌다. 회사는 투자자들이 몇 가지

서류만 내고 투자금을 보내면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했다. 지점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익은 보통 5개월에 약 17% 수준이다.

문제는 아쉬세븐이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금융 다단계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일부 조합원은 아쉬세븐이 올해 1월부터 몇몇 지점에서 4개월여 만에 50~100% 수준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원금과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부와 명부 등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

아쉬세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다. 원금을 보장(유사수신 혐의)한 적이 없으며 사기 혐의 역시 회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쉬세븐 관계자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액의 정의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주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을 모두 합쳐서 따진 것 아닌가 싶다. 법원에서 따질 문제다"고 항변했다.

아쉬세븐은 올해 1월 12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사 센트럴인사이트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엄모 대표는 최대주주 등극 직후 센트럴인사이트 대표로 선임됐으나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불거졌다가 최근 소가 취하됐다. 현재 센트럴인사이트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기영 기자 pgy@이민희 수습기자 nancho0907@이민재 수습기자 2mj@

재난지원금 불만 폭주에 지급대상 90%로 확대
(소득하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88%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제선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게 최대 과제다. 이의신청에 증명 요구가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 반영해 수용해야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며 "88%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라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데 대해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 원금을 주는 데 40만 건

'3인' 1195만2000원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4인' 1462만9000원 "판단미호

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의장은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우려에 관해선 "추세 때 딱 88%에 맞춘 게 아니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행정력으로 선별해 왔지만 88%가 아닌 실제 87.9%가 선정됐다. 이의신청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추가 지급 대상자의 경우 3개월가량 소비할 시간 여유를 주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월 가구소득액은 3인 가구가 1195만2000원, 4인 가구는 1462만9000원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



문 대통령 "K-조선, 압도적 세계 1위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했다.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친환경·스마트 선박을 대폭 확대해 조선업의 세계 1위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포토라인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금융위원장>

고승범 "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

추가규제 시사... 네이버·카카오 주가 이틀연속 급락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양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적 영업행위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원칙"이라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추천·판매 서비스에 대해 '광고'보다 '중개'에 가까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4면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빅테크 특혜 논란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



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이슈에 대

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초를 만들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핀테크 주도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출대출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소통을 더 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그간 금융혁신 아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관대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당국이 노선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권을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사안이 곳곳에서 '빅테크'만 수혜를 입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의 실무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금융법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융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 속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는 전일 대비 1만 원(-7.22%) 하락한 12만8500원, 네이버는 1만500원(-2.56%) 내린 39만9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현대차, 아산공장 11월 휴업 일정 재조정

"반도체 부족 생산중단 피해 최소화"

현대자동차가 올해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는 충남 아산공장의 설비공사 일정을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차 휴업(7~8월)에 이어 11월로 예정됐던 2차 휴업기간을 조절해 반도체 부족에 따른 가동 중단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생산 전략이다.

9일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 이투데이 취재 등을 종합해 보면 현대차 노사 양측은 11월로 예정된 아산공장 2차 휴업 일정을 재검토 중이다.

앞서 현대차는 7월 13일부터 8월 6일까지 4주 동안 아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내년부터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인 '하이오닉 6'을 위해 이 기간 일부 설비 교체를 했다. 2차로 11월에도 약 2주 동안 휴업을 예고했다.

올해만 설비 교체를 위해 총 6주 동안 공장을 멈춰 세우는 셈이다. 아산공장이 약 6주간 휴업하면 연간 생산량의 8% 규모에 해당하는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 본지 취재 결과 현대차는 이를 피하기

위해 11월로 예정된 2차 휴업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공사 일정을 앞당기거나 공정 분산, 공사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이어지는 만큼, 설비공사를 위한 휴업이 가동 중단 기간과 겹치는 게 이익이다. 앞서 7~8월 설비공사의 막바지 공정을 근로자들의 '하계휴가 기간'인 8월 첫째 주에 맞춰 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부터 이틀 동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이 반도체 부족 사태로 각각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11월은 별다른 연휴가 없다 보니 조업일수가 총 22일이 나 된다"며 "회사로서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면 조업일수가 많은 4월과 11월 등은 피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2025년까지>

한화큐셀, 1.5兆 투자 차세대 태양광 시장 선점 나선다

총 누적투자 3兆, 연간 생산능력 4.5GW→7.6GW 확대
국내 공장·연구시설에 자금 투입, 고효율 탠덤 셀 연구 박차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 2025년까지 국내 태양광 생산·연구시설에 1조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누적 투자 규모는 3조 원으로 확대된다. 한화큐셀은 고효율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전환과 차세대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탠덤 셀 연구 등에 투자를 진행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한국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등 4개 국가에 생산시설이 있다. 올해 기준 셀 생산능력은 총 10GW(기가와트)다. 이 중 한국이 4.5GW, 나머지 3개 국가가 5.5GW다. 모듈은 총 12.4GW로 이 중 한국이 4.5GW, 나머지 3개국이 7.9GW다.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에 있는 한화

큐셀의 한국 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셀과 모듈 공장이다. 진천군 산수산업단지의 1공장과 2공장은 각각 2016년과 2018년에 양산을 시작했다. 음성공장은 2015년 6월 양산 체계를 갖췄다. 한화큐셀은 작년까지 공장들에 1조 5000억 원을 투자했다. 생산 제품 중 약 50%를 수출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 결정을 포함해 한화큐셀은 국내에 누적 3조 원의 투자를 진행한다. 한화큐셀은 앞서 2019년까지 1조4000억 원을 투자했고 지난해에는 1000억 원의 투자를 추가로 집행했다. 한국 공장의 셀과 모듈 생산능력은 2025년까지 연간 7.6GW로 확대한다. 국내 기준 연간 1200만 명이 쓸 수 있는 가정



한화큐셀의 경기도 판교 R&D센터에서 연구원이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탠덤 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큐셀

용 전기를 만드는 규모다. 또한, 한화큐셀은 국내 태양광 산업의 육성을 위해 향후 투자로 만드는 태양광 셀에 대해 국내 모듈 제조사들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학계, 소재 부품 장비 중소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판교 연구

구소에서 차세대 태양광 셀인 탠덤 셀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탠덤 셀 국책 과제 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탠덤 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광 셀 위에 차세대 태양광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쌓

는 형태로 만든다. 무기물과 유기물 등을 섞어 만드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전기전도성이 높은 결정구조를 갖췄다.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저렴하고,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소재로 꼽힌다. 가법공정 제조 공정이 간편해 생산비용이 실리콘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다만 수분과 열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아직 상용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로 한화큐셀의 선도적인 업계 지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한화큐셀은 미래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큐셀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큐피크 듀오 시리즈는 미국, 독일, 영국, 한국 등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한화큐셀이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한 핵심 제품군이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2015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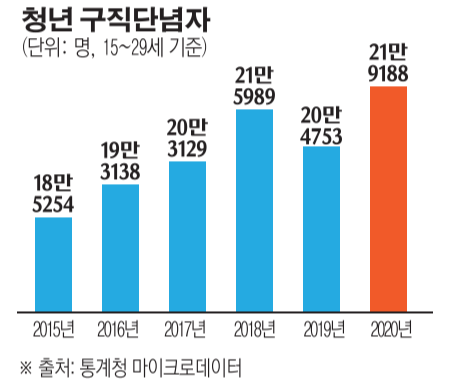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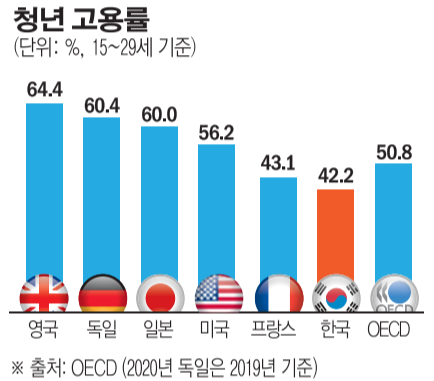
“청년구직단념자 18% 급증, 4명중 1명 실업자”

한경연, 여성 경력단절·자영업 포화 등 지적... 경총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해야”

우리나라 청년 고용부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유연성과 정규직 과보호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가 5대 특징으로 대두됐다고 9일 밝혔다. 분석 결과, 특히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평균 56.8%보다 14.6%포인트(p) 낮았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은 G5국가 평균(62.5%)에 못

미쳤다.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렀다. 청년 구직단념자도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해 21만9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다.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했다.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미치는 점과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발표한 ‘지난 10년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빠른 고용 회복을 위해선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내실 있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9년 사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률 순위는 21위에서 28위로 7계단 하락했다. 2011년 63.9%이던 고용률 수치는 2015년 65.9%까지 상승했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 66%대에 정체됐다. G7 국가(G5+이탈리아·캐나다)와 노르딕 4국(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은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며 이 기간 OECD 평균 수치는 64.8%에서 68.7%까지 상승했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전

(2011~2019년)부터 주요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보다 낮아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중복되는 고용보험 사업을 통합해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동이동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citizen@

THE HYUNDAI

현대백화점 창사 50주년 기획 추석 선물

최고의 식품을 향한 집념의 반백 년 역사,
시간이 쌓은 노하우로 감동을 전합니다.

토종꿀 진옥고 세트
1년에 딱 한번 내린 토종꿀과 수천 번 두드려 완성한 방짜유기

현대명품 화식한우 매
지정목장인 현대사산농장에서 과학적으로 키운 프리미엄 화식한우

베린저 나파 밸리 블랙라벨
현대백화점 창사 50주년을 맞아 美 베린저와 협업한 와인 세트

* 법인 고객께 특별한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더현대닷컴 특판 상담 컨시어지 02-6904-0913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mall | 현대백화점연세점 | 한성 | 더현대닷컴 | H패션몰 | 현대리바트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벙키미शन

2021 디지털 추석 특선집
바로 가기

연 300% 보장한다면서 계약서에는 구체적 내용 없어

아쉬세븐 폰지사기 의혹

“넉 달 투자하면 100% 수익을 얹어 주겠다.”

아쉬세븐(ASHE7)의 말만 믿고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폭증하고 있다. 수익은커녕 원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투데이의 취재가 진행되자 피해를 호소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과거 여러 차례 벌어졌던 ‘폰지(신규 고객 돈으로 기존 고객에게 수익을 제공)형 사기’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비판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관대한 처벌이 금융사기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1조 원대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는 징역 15년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4억5000만 달러(약 500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뉴욕 사업가 솔람 와이스는 미국에서 845년형을 받았다. 한국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형량 차이다.

◇4개월에 100% 수익 미끼였나- 9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아쉬세븐 전국 34개 지점 중 몇몇 지점에서 올해 1월 초 ‘아쉬세븐 상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투자금은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로, 4개월간 투자하면 100% 수익을 얹어 원금 대비 200%에 달하는 현금 또는 주식을 지급한

연초 ‘상장 이벤트’ 투자금 모아 투자자들 금융상품으로 이해 원금보장했다면 유사수신 행위 조합원 “다단계” vs 사측 “방판”

다는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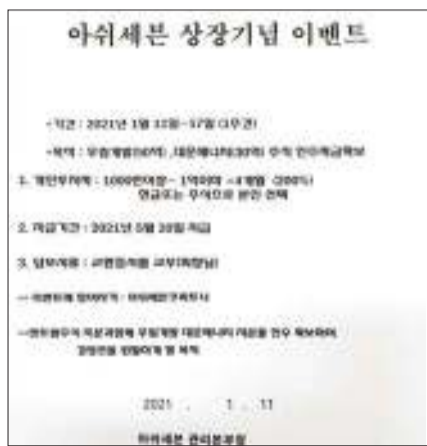
해당 이벤트는 일부 지점에서만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수익률은 50~100%로 상이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00%에 달한다.

2014년부터 아쉬세븐은 ‘화장품을 구매하면 이를 위탁 판매해 5개월당 17% 수익을 주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40% 수익률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수익 계약에 정작 서류는 부실했다. 이투데이가 확보한 화장품 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 계약서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매수·위탁 상품명과 수량, 금액만이 기재됐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현금이 오고 갔는데, 수익률이나 위탁사항, 계약 내용 등이 전무했다.

올해 1월에는 투자금을 모으면서 ‘투자약정증서’를 발급했는데, 이 문서에는 ‘주식회사 아쉬세븐은 위 금액을 투자받는 것에 관하여 약정한다.(약정기간 : 2021년 5월 20일)’이라고 단 한 줄이 적혔을 뿐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원금을 ‘투자금’, 수익



을 ‘이자’라고 불렀다. 사실상 금융상품으로 이해한 것이다.

아쉬세븐 측은 “화장품 품목별로 가격이 상이하다 보니 마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50% 남긴다”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익률을 약 17%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원금보장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1월에 진행한 투자약정도 “센트럴인사이트 주식을 거래가보다 싸게 사왔으니,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생각이었”고 해명했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문서상 기록이 적은 만큼, 조합원들의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아쉬세븐이 원금을 보장한 것으로 밝혀지면 미인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다수의 일관된 진술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사업 실체성, ‘사기’ 혐의 쟁점될 듯 = 투자금도 사라진 정황이 포착된다. 아쉬세븐은 지난해 매출액 130억 원, 2019년 167억 원을 올렸다.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매출액과 피해금액 차이가 수십 배에 달한다. 아쉬세븐은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주문해 지점으로 보내는 방식이란 점을 고려하면 본사 매출액 외의 자금 흐름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아쉬세븐 측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 현재 매출 규모나 지점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세븐 측이 파악하고 있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언급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조합원은 아쉬세븐이 다단계 방식

으로 영업을 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을 소개하면 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쉬세븐 측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판매를 한 적이 없다”며 “방문판매 등록을 했고, 방문판매를 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폰지사기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수사 기관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한다. IDS홀딩스, VIK 관련 사건 등을 맡았던 이민석 금융피해지원대변회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수익 보장과 대규모 자금 모집, 불투명한 사업 등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행태”라고 말했다.

과거 ‘조희팔 사건’은 전국에 여러 이름으로 10여 개의 업체를 차리고 모텔·찜질방 등에 안마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 수입을 올린다는 사업 구상으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받았다. IDS홀딩스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해 매달 1~10%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준다고 속여 1만여 명에게 1조960억 원을 편취했다. 박기영·이민희·이민재 수습기자 2mj@



김치코인 피해규모

-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 70개, 6조 원 (피해 예상금액 42개, 3조 원)
- 원화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 112개 이상, 9조 원
-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 159개 이상, 12.7조 원

ISMS 인증 완료 또는 신청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수 확인 중

가상자산 거래소 셧아웃 땐 투자자 피해 규모 3兆 육박

김치코인 159개 시총 12.7조 ‘빅4’ 외 거래소 규제책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셧아웃하거나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9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셧아웃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거래소 36개를 대상으로 소위 김치코인(발행자가 한국인이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해 원화거래 비중이 80%가 넘는 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거래소가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관계로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했다. 그 결과, 코인마켓캡에는 이달 8일 기준 1만1734개의 코인이 등재돼 있다. 이 중 최소 159개 코인이 김치코인으로 분류되며, 시가총액은 12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원화마켓이 닫힐 경우 생존을 도모하기 어려운 순수 김치코인은 112개로 확인됐다. 업비트·빗썸·코인원에 상장된 70개 코인을 제외하면 42개의 코인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3조 원에 달한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정치인을 만나 얘기하던 중 4대 거래소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이 거래소만 신고수리를 해주면 거의 모든 코인들이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다”며 “4대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에서 커버하는 김치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39%에 달하고, 많은 코인들이 4대 거래소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닌 만큼 거래소에 대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요송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코어닥스 대표)도 “코인마켓캡에 등재되려면 거래소 3개 이상에 상장돼야 하는 만큼 통계에 해당하지 않는 코인들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10조 원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The history of **피**

비침, 피부 속 깊은 힘을 찾다

비침 자생 에센스

특별한 가치를 담은 선물, 로얄 안티에이징을 전하세요

비침 자생 에센스 2종 세트

비침 자생 에센스 50 ml, 비침 자생 에센스 20 ml

천가단 화현 밸런스 25 ml, 화현 로션 25 ml, 화현 보 앰플 8 ml

화현 클렌징 폼 50 ml, 공진향 진해윤 링클 선크림 13 ml

왕후의 비밀-후

· 전국 유명 백화점 매장 및 방문판매 카운셀러를 통하여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080-023-7007 / www.whoo.co.kr

“개발 소식에 임대 재계약 못하고 ‘생계 터전’ 빼앗겨”

르포 용산전자상가 소상공인 만나보니

“가게가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전자상가라고 할 수 있겠나. 개발이 문제가 아니다. 임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6일 기자가 찾아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거리는 썰렁하다 못해 적막했다. 몇몇 조명 가게만이 손님 없는 거리를 외롭게 비추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거래 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2동에서 25년간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A 씨는 양 옆으로 텅 빈 점포를 보고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A 씨는 “건물주가 2층에서 3층까지 통건물로 계약하는 게 아니면 계약을 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며 “지금 용산전자상가는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 문제”라고 토로했다.

A 씨 점포 바로 옆에서 전기부품을 판매하는 B 씨는 올해 말이면 점포를 비워야만 한다. 무려 30년간 B 씨와 동고동락했던 점포다. 그는 “아무래도 이곳이 개발된다는 말이 많으니까 건물주들이 빨리 팔려는 것 같다”며 “개발 소식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용산전자상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 약 477억 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개발이 지지부진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다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연계전략 마련’이라는 용역을 발주했다. 낙후된 용산전자상가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해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역 결과를 11월 발표될 용산정비청 개발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용산전자상가 개발 계획에도 임대 상인들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년간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지지부진했던데다 오히려 개발 소식으로 인해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국제업무지구 연계 개발 추진에 수십 년 된 매장도 줄줄이 폐점 상인 “상권 활성화 노력 물거품”

전문가 “임대인 희생 강요보다 재산세 감면 등 재계약 혜택”

원효상가에서 10년간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던 C 씨는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대 상권이 좋아졌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도 짓겠다고 했는데 추진도 잘 안 되는 데다 이런 사업이 전자상가 상권 활성화와 크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현재 용산전자상가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임대 재계약이다. 애당초 건물주가 재계약을 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 환경을 개발하는 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나진상가 19·20동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 전체 108개 점포 중 영업 중인 점포는 10여 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텅 빈 통건물이었다. 20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점포들이 불과 1~2년 새 줄줄이 나갔다. 2017년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가 기존 나진상가 소유주였던 ‘나진산업’을 인수한 이후부터 임대 재계약이 어려워졌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매장을 운영했던 D 씨도 다음 달이면 가게를 비워야 한다. 임대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D 씨는 “상인들이 전자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는데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라며 한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상인이 있어야 도시재생사업 같은 개발도 의미가 있다”며 “상인들 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로 S공인 관계자는 “아직 용산전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2동' 거리의 점포 곳곳이 문을 닫았다(왼쪽). '나진상가 19·20동' 1층 중앙 복도 양옆으로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 있다.

상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향후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건물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10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이전을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은 5년까지 보장된다.

용산전자상가 내 상가 대부분이 이미 5

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여서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료를 조정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하는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임대인도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임차인을 위해서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적정 임대료를 다시 맞추는 상생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교연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임대인에게 마냥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재계약을 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세나 재산세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나진상가 임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은 나진산업이다. 상인들과 임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나진산업 관계자는 “지금 나진상가 임대 문제 관련해서는 말을 해주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글/사진 박민용 수습기자 pmw7001@

<국토부 장관>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개선 검토”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분양가 심사제 등 민간 건설업체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제도 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조치를 실행해 왔다”며 “민간 업계와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 분양가상한제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및 시장 안정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 관련 협회장과 건설사 대표들은 △도심 내 공급주택 규제 개선 △비아파트·전세대책 인센티브 확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상한



제 심의 기준 마련 △인허가 속도 제고 등을 건의했다.

11월 시행 예정인 민간 사전청약에 대한 건설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택지공급 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9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

올 하반기 중 매각할 택지의 경우 전체 25곳 중 80% 이상인 21곳이 이미 보상이 완료돼 있는 등 신속한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민간 사전청약) 발표됐을 당시 반신반이했던 주택업체들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며 “현재 LH 공공택지 민간 공급분에만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지방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도 확대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장관은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택지공급 제도, 추정 분양가 산정·심사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바이탈뷰티 명작수
건강기능식품
600g | 20g x 30캡슐

건강한 일상이 소중한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 - 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정부, 우수 中企에 청년 10만명 취업 지원

하반기 일자리매칭 프로그램 운영
여행숙박업 등 1.1조 고용 지원금
자영업자·고용위기산업 재직자
전직 훈련 받으면 월 20만원 수당

우수 중소기업에 청년 구직자 10만 명의 취업을 매칭해주고, 고용 위기 산업 재직자가 전직 훈련을 받으면 월 20만 원의 특별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제2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부처 '일자리·직업 능력개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9만6000명의 일자리를 직접 연결해 준다. 지역별 채용박람회와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4000여 명의 일자리 연결과 취업도 지원한다.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 여행업·관광 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집합금지·제한업종 등에 1조1000억 원 규모의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 확대 기업에는 320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일자리 창출·유지기업' 등에는 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디지털·저탄소 전환 가속화에 따른 노동전환에 대해 내연 기관 자동차 등 고용 위기 산업의 재직자와 취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전직 훈련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훈련 참여를 위한 특별훈련수당도 지급한다. 특별훈련수당은 현행 훈련장려금(월 11만6000원)을 포함해 총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조에 맞춘 '환경 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도 제시했다. 추진전략은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 신산업 성장 저변 구축, 청년과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여력 확보, 생산·금융·사람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기반 구축 등을 3대 전략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 일자리 8만 개를 창출하고,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 일자리 8만 개를 창출하고,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을 통해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는 온라인·비대면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품물 입점 등을 지원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판로 지원을 위해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업종별 민간 유통 전문 조직인 '소셜 밴드'를 육성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제품 구매도 확대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한은, 추가 금리인상 '군불'

“금융 불균형 누적 유의”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기가 개선되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을 때 금리인상은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봤다.
9일 한은은 '통화정책신용보고서'를 통해 부채의 큰 폭 증가를 수반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 등 금융 불균형 누적이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금융 시장 불안 및 소비 등 실물경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 불균형 누적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까지도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폭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과 8월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각각 8.81%와

15.07%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 1분기(1~3월) 105.0%로 추정돼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국 43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다.
과거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0.25%포인트 금리인상은 향후 1년간 GDP를 0.1%포인트, 소비지출 증가율을 0.04%포인트씩 낮췄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도 각각 0.4%포인트와 0.25%포인트 정도씩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최근과 같이 실물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성장과 물가보다 금융 불균형 완화 정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컸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번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어떻게 추가적으로 조정하느냐가 향후 고민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김부겸 총리, 로봇 보급사업 현장 방문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9일 로봇산업 현장인 대구시 서구 진호염직을 방문해 제조로봇 선도 보급 실증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유행 안 잡히면 추석 이후 전국 확산”

접종률 낮은 40대 이하 확진 많아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상황이 내주까지 진정되지 않으면 연휴를 계기로 확산세가 전국으로 변질 가능성이 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만 140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충청권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선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몇 차례 유행을 거치면서 전제적인 환자의 기저치 수준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휴가철 등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접촉이 증가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며 “예방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의

예방접종률에는 도달하지 못한 측면도 작용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이날 0시 기준 1차 이상 예방접종률(성인 대비)은 서울이 68.5%, 인천은 68.1%, 경기도는 67.4%로 전국 평균(69.7%)을 밑돈다. 우선접종대상인 고령층(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작아서다. 수도권 확산세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60.2%는 접종률이 50%대 초반에 불과한 40대 이하이다.
접종률이 낮은 연령계층에서 확진자가 늘는 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26.8%는 어린이 환자이며, 이스라엘은 최근 1개월간 신규 확진자 중 43.5%가 20세 미만이다.
김기남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수도권의 유행이 줄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를 통해 비수도권으로 증가세가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가급적 약속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조선 1위 굳히기’ 채용 인센티브 주고 퇴직자 재고용

정부 'K-조선 재도약 전략'
내년까지 8000명 인력 양성
자율운항 선박 2025년 상용화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의 조선강국 굳히기에 들어간다. 내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해 생산성을 높이고, 2025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인력, 친환경·스마트 선박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세계 1등 조선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1990~2000년 한국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2010년대 중국이 부상하며 양강구도가 형성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재도약을 통해 세계 1등 조선강국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규 인력을 양성한다. 올해 생산 기술 약 2500명, 내년 2600여 명을 비롯

해 LNG설계 엔지니어링기술 인력도 올해와 내년 각각 160명씩 양성하는 등 내년까지 8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채용인력 인센티브를 신설해 고용부의 월 100만 원 훈련수당에 추가해 산업부의 월 100만 원(2개월) 훈련수당을 신설했다. 협력사 직원에 대한 주거, 의료비·학자금 등 복지후생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숙련 인력 공급 차원에서 퇴직 인력도 활용한다. 퇴직 후 3개월 이상 실업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30만~5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최장 8개월 지급한다.
선박의 친환경·스마트화도 꾀한다.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 기술을 개발해 2031~2040년 무탄소 선박 상용화 시작 및 초기시장 선도, 2041~2050년 무탄소 선박 완전 상용화 및 글로벌 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 등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자율운항 선박도 2025년까지 상용화해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해수부는 2020~2025년 16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울산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를 구축하며, 기술 선전을 위한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전 공정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야드 구축을 위해 로봇융합, 블록조립 디지털 트윈기술 등 총 11개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K조선 재도약의 성패는 우리 조선산업의 블루오션인 친환경·스마트 선박에 달려 있다”며 “세계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스마트화로 전환되면서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K조선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스마트 선박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현재의 수주 실적이 실제 현장에서 일감으로 체화되기까지 1년가량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탄탄한 K조선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세종=박병립 기자 riby@

<1~7월>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 하반기 보릿고개 우려

국가채무 사상 첫 900조 돌파

올해 1~7월 국제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 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주식거래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제 수입은 223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41조7000억 원)가 10조9000억 원, 부가가치세(57조3000억 원)가 9조 원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진 영향이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9조 1000억 원, 2조2000억 원 늘었다.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 실제로 5월까지의 매달 10조 원 이상 국제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7월 국제 수입은 1년 전보다 6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부동산·주식거래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올해 6~7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7만8000호로 지난해보다 36.5%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도 올해 7월 579조6000억 원으로 5.6%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7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14조 2000억 원으로 사상 첫 900조 원을 넘어섰다. 가파른 지출 증가가 이어진 영향이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56조9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은 지난해(98조1000억 원)보다는 개선됐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국민의힘 '고발사주' 새 전달자 나와, 당 차원 개입 의혹



국민 공개면접서 만난 홍준표·유승민
홍준표(왼쪽) 후보가 9일 서울 금천구 줄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에서 유승민 후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점식 '최강속 고발장' 당에 전달 윤석열 측근에게 받은 것과 유사 국힘, 법률자문 변호사에게 토스 이준석, 최고위 산하 대응기구 출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내부로 번졌다. 8월 작성된 최강속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을 정점식 의원이 전달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차원에서 대응기구를 출범하기로 했고 윤 후보는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 수사가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나면 당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명선거추진단을 출범, 운영하기로 의결했다"며 "단장은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할 수 있고 언론과 소통이 편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추진단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가 아닌 최고위 산하 기구로 기존 대선 때 구성됐던 네거티브 대응팀보다 돈을 낮은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본래 선대위 산하 기구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윤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거세지고 당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자 서둘러 대응팀을 구성한 것이다. 추진단이 구성됐지만 이날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용 의원이 윤 후보의 측근인 손 모 검사에게 전달받았다는 4월 고발장과 유사하다고 알려진 8월 고발장을, 정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실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한테 해당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 차원에서 고발 사주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 캠프는 고발장 접수 과정에 윤 후보 개입 사실이 있다면 도의적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만약 관련이 있다면)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관리 책임으로"라며 "그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윤 후보 캠프는 자체적으로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윤 후보는 강원도 방문에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 "빨리 확인할 걸 확인해서 결론 내리"며 "공작이나 말장난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고발장 전달 의혹과 관련해선 "어떤 문서든 작성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확인했기에 검찰수사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의원의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은 누가 봐도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공지의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고발장 초안이라고 하는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이낙연 의원직 던지자, 이재명 지사직에 쏠린 눈

야권선 "지사 찬스 물러나야"... 與 내부선 "직위 유지 관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 참패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자 현직 도지사직을 유지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눈이 쏠린다. 10월 10일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직후인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사퇴할지를 두고 쟁점이 분분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낙연 후보의 사퇴 배수진이 이재명 후보의 지사 찬스 논란을 부각시키며 공중 정의를 부합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부각하는 면도 있다"며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사퇴하지 않고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엄 소장은 "2012년 대선에 나섰던 문재인 후보 역시 의원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렀고, 과거 안희정 충남지사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현직을 유지했었다"고 피력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지사 찬스' 논란까지 불거져 과거와는 다른 현직 특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대선 캠프 관계자는 "국회는 지금부터 국감을 대비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경기도 홍보비 등 불리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 충분히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만일에 있을 사퇴 시점에 대해서도 엇갈린다. 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9일 전북 전주시 남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국감 중간에 사퇴할 경우 경기도 국감을 직전에 앞두고 회피하려는 측면도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을 치르고 대선 후보로 확정돼 국감을 맞이하면 엄청난 야당의 공세를 맞닥뜨리지만, 국감 도중 사퇴를 하면 도지사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어서 이 후보로서

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지사는 지사직과 관련해 도민과의 약속을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사퇴 주장은 이와는 다른 정치공학적인 것으로, 이 전 대표 의원직 사퇴와 지사직 사퇴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김윤호 기자 uknow@

제보자 지목된 조성은 "윤석열에 법적 대응"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사실 아냐"

'윤석열 대검찰청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조성은(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용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전 비대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선거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 자체만으로도 송구하다"면서도 "대다수 내용은 김 의원이 주도하는, 주변 기자들과 언론에다가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둘러싼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그는 "나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떤 정당활동 내지는 대선 캠프에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자들에게 이재명 캠프 등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대선) 캠프' 활동한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비대위원은 "김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매우 중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비대위원은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당에도 누가 되는 상황"이라며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 어떠한 대응을 할지도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특위 부별심사에서 국민의힘 과상도 의원으로부터 조 전 비대위원에 대한 제보자 여부 확인 요구에 "제가 그걸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민주당 처리 난색... '사퇴쇼 방지법' 주목

여야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해 민주당이 곤혹스럽게 됐다. 윤 의원에겐 '사퇴쇼'라고 비판하며 무산시키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전 대표가 갑작스레 의원직을 던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8일 예고 없이 의원직 사

퇴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밀리는 경선 역전을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인데, 윤 의원 사퇴 건으로 골치가 썩던 민주당은 부담이 더해졌다. 이 때문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만류하고 나섰지만, 이 전 대표는 보좌진 면직 처리까지 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

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향후 원팀으로 경선을 치르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전화로 만류했다"며 "이낙연 후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 계속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사퇴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사퇴하면 대선 의석은 줄어들지 않거나 부결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퇴쇼'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또 여야 모두 발의한 '의원직 사퇴쇼 방지법'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윤 의원 사퇴 선언 이후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그간 실제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진 않으면서 사퇴 선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행태를 짚으며 현행 본회의의 결 절차를 없애고 사직서 제출 시 직을 내려 놓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윤호 기자 uknow@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부천 원미동 가로주택정비 구역 뉴타운 조성 직후 사들여 보유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시의 토지 매입을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지 않는 낡은 연립주택도 장기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

한 재산신고내역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전용면적 51.24㎡ 규모의 연립주택(부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뉴타운 조성 직후 사들여 후 10년째 보유하며 거주하지 않고 같은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해당 연립주택은 부흥시장과 연결된 곳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시세차익 기대감이 퍼져 있다. 원미동 일대는 2009년 뉴타운으로 지정되며 재개발이 본격화했다. 당시 경기도는 원미동을

비슷한 춘의동, 심곡동, 소사동 일대 191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발표하며 완료 시점을 2020년으로 잡았다. 이듬해 뉴타운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해당 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김 의원은 2011년 4월 이 지역 연립주택을 취득한 것이다.

부천시는 2017년부터 원미동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오렌 기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유 중인 연립주택이 위치한 이곳에서 '부흥-유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다. 부천시

에서도 사업성 분석 등의 도움을 줬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 대리인(보좌진)을 통해 동의서를 제일 마지막에 낼 것이라고 전해왔다"며 "동의서는 빨리 내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 과정, 관련 정보에 대해서 간간히 물어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라도 하나 받아볼까 했지만, 아직까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박준상 기자 jooon@



K-GREEN
Stech, K-그린!
ESG로 열다

한 번 쓴 자원, 다시 자원으로 되살리는 일
 지구에 좋은 에너지, 더 많이 만들게 하는 일
 지구를 달리는 차,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

SK이노베이션의
E이런 S사업 G곳

|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 신재생 에너지용 윤활유 | 전기차 배터리·소재 생산 |

K-그린을 이끌어가는 ESG적인 사업
 SK이노베이션과 SK지오센트릭,
 SK루브리컨츠,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함께 합니다.

Hi **K-Green**
Hi **ESG**
Hi **!nnovation**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37년의 동행 37년의 성장

37년동안 5,000여명의 참가자.
37년동안 37개의 트로피.
37년동안 211억원의 상금.
37년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도전.
37년동안 바라왔던 하나의 꿈은
대한민국 골퍼들의 희망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

**대한민국 골프의 내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열다
The Tradition Continues

제37회 신한동해오픈
2021.9.9~12 / 베어즈베스트 청라 G.C.

신한동해오픈 재일동포 골프 동호인들이 고국 골프발전과 국제적 선수 육성을 위해 1981년 시작한 대회입니다. 고국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대회명을 동해오픈이라 이름 지었고, 올해도 서른일곱번째 대회가 이어지며 그들의 바람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국제 환경 인증 받고 재활용 늘리고

삼성·LG, 脫탄소 순환경제 선도

삼성,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4종
카본 트러스트 '탄소 발자국' 인증

LG, 폐전자제품 회수 대폭 확대
쿠광 협업 '재활용 포장재' 공급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4종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과 LG가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도 '국제 환경 인증'을 받았다. LG 전자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과 폐전자제품 회수를 늘리기로 했고, LG화학은 쿠광 물류센터에서 버려지는 스트레치 필름을 수거해 포장재 등으로 다시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영국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제품 4종에 대해 '제품 탄소 발자국'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제품 탄소 발자국을 획득한 제품은 모바일 시스템온칩(SoC) '엑시노스 2100',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HM2', 디지털 TV SoC 'S6HD 820', 타이밍 컨트롤러 'S6TST21' 등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4종이다.

삼성전자는 제품 생산에 활용되는 반도체 공정 중 식각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양을 감축하고, 온실가스 분해 장치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제품 소비 전력 효율화를 위한 솔루션도 적용하며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반도체 업계 최초로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메모리 제품에 대한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고,

2020년에는 탄소 저감 인증까지 취득했다.

LG전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누적 60만 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단계적으로는 2025년까지 누적 20만 톤 사용이 목표다. 지난해 사용한 재활용 플라스틱은 약 2만 톤이다.

LG전자는 현재 TV, 모니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의 일부 모델에 내장부품 원료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관 부품에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LCD TV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이 적은 OLED TV 제품군을 기존 14개에서 올해 18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1만 톤 가까이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폐전자제품도 더 많이 회수한다. 2006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로 한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을 기존 450만 톤에서 800만 톤으로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회수량은 307만 톤이다.

LG화학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및 재

활용을 위해 쿠광과 협력하기로 했다. 쿠광이 전국의 물류센터에서 버려지는 연간 3000톤 규모의 스트레치 필름을 수거하면, LG화학이 이를 포장재 등으로 사용 가능한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

양사의 친환경 프로젝트는 쿠광의 물류센터에서 회수 가능한 플라스틱 자원을 LG화학의 PCR(Post-Consumer Recycle) 기술을 통해 폴리에틸렌(PE) 필름 등으로 재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PCR은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을 선별, 분쇄, 세척 등의 재가공을 통해 플라스틱 알갱이 형태의 초기 원료로 변환시키는 재활용 기술이다. LG화학의 PCR 기술로 재활용된 친환경 소재는 쿠광의 물품 배송용 포장 필름에 적용될 예정이다. 양사는 쿠광의 물류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필름 또한 다시 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포스코케미칼, 中 흑연 가공社 '청도중석' 지분 인수

음극재 원료 안정적 수급 물꼬

포스코케미칼이 고품질 음극재 제조 원료 가운데 하나인 구형 흑연 수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 현지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

9일 포스코케미칼은 "중국 흑연 가공 회사인 청도중석 지분 13%를 인수하고 내년 부터 음극재 생산에 필요한 구형흑연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도중석은 중국 흑연 원료 전문기업 하

이다'의 자회사로, 연산 2만5000톤의 구형 흑연 생산능력을 갖췄다. 구형흑연이란 흑연광석을 고품질 음극재 제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한 중간원료다. 흑연 입자를 동글게 구형화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친다. 음극재는 배터리 충전 시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원료 가공 단계부터 균일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배터리 충전속도와 수명을 좌우한다.

이번 투자로 포스코케미칼은 원료 채굴, 중간 원료, 소재 생산에 이르는 음극재

사업의 가치 체인을 구축했다. 앞으로 음극재 생산능력을 올해 4만4000톤, 2025년 17만2000톤, 2030년 26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양극재 사업에서도 2022년까지 연산 10만 톤의 광양공장 건설을 마치고 연산 6만 톤 규모의 포항공장도 건설한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미국, EU 등에도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SK이노, 에코프로와 10兆 규모 양극재 구매 계약

폐배터리 재활용 등 협력 강화

SK이노베이션이 국내 1위 양극재 제조사 에코프로비엠(EcoproBM)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0조 원대 대규모 양극재를 공급받기로 했다.

9일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인 에코프로(Ecopro) 및 에코프로비엠 등과 양극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계약 및 협약식에는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 신영기 배터리 구매센터장과 이동재 에코프로 회장, 권우석 에코프로비엠 사장 등이 참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향후 양극재와 관련한 소재 사업

공동 투자, 국내외 공장 증설,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핵심 소재 파트너사 중 하나인 에코프로 그룹과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중인 고성능 배터리 양극재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넘어, 양사 협력을 통해 소재 산업 자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 대표는 "고품질 배터리 제조는 물론, 핵심 소재에 이르기까지 사업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톱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굳건한 파트너인 에코프로 그룹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다숨 수습기자 citizen@

SK E&S, 美 그리드솔루션 기업 품었다

에너지 新산업 공략 본격화

'KCE' 지분 95% 인수 성공
신규 프로젝트 6억 달러 투자
안정적 전력공급 시너지 기대



SK E&S가 인수한 KCE가 뉴욕에 운영 중인 ESS 설비.

에너지솔루션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의 도전을 선언했던 SK E&S가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SK E&S는 미국의 그리드솔루션(Grid Solution) 기업인 '키 캡처 에너지(Key Capture Energy·KCE)' 지분 약 95%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리드솔루션은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력 공급의 변동성과 전력망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를 저장하는 시설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되, 송전망과 배전망에 연계된 ESS를 인공지능(AI)기술과 접목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일컫는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이 날씨와 시간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라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ESS에 저장해 둔 전기를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판매할 수 있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특히 전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SK E&S는 2025년까지 KCE를 미국 내 1위 기업이자 글로벌 선도 기업

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대 민간발전 회사로 대규모 전력거래 경험과 SK그룹이 보유한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KCE의 그리드솔루션 사업 전문성과 추가 성장자금 투자 및 사업모델 고도화 등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2~3년 동안 KCE의 경영권 인수와 신규 프로젝트 추진 등에 약 6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SK E&S는 그리드솔루션 사업분야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대규모 송전·배전망이 필요하지 않아 전력망 증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유정준 SK E&S 부회장은 "KCE의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잉여 전기를 활용하는 등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효율적 전기 사용을 극대화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다숨 수습기자 citizen@

삼성·LG, 명절 전 납품대금 1.4兆 지급

삼성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내수 경기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9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은 추석을 앞두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협력회사 물품대금 조기 지급과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 판매 확대 지원(사진)에 나섰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총 12개 삼성 관계사는 총 8000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일주일 이상 앞당겨 추석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들이 자금 유동성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거래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해 왔다. 2011년부터는 물품 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려 지급하고 있다.



LG도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회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62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를 비롯한 8개 계열사는 예정 지급일보다 최대 10여 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LG 계열사들은 2·3차 협력회사들이 추석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1차 협력회사들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삼성 '스마트싱스 파인드' 등록 1억대 돌파

삼성전자는 자신의 기기나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싱스 파인드(SmartThings Find)' 서비스에 1억 대가 넘는 '파인드 기기'가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스마트싱스 파인드는 갤럭시 기기 이용자가 저전력 블루투스(BLE), 초광대역(UWB)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기기나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는 스마트폰·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물론, 위치-이어버즈·S펜 프로까지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대부분의 갤럭시 기기 위치를 파악해 준다. 1억 대의 파인드 기기는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진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기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는 세계에서 매일 약 23만 대의 기기 위치 확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성 기자 tskwon@

르노삼성, 노사 임단협 조인식

9일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공장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임단협과 2021년 임협 협상을 마무리하고 조인식(사진)을 열었다.

작년 7월부터 진행된 르노삼성 임단협은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3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5% 찬성으로 타결됐다. 르노삼성 노사는 이날 서명한 합의서를 통해 노사 및 노·노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새로운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하는 획일적 방역, 이제 그만”

르포 ‘자영업자 차량시위’ 7시간 동행 취재

8일 밤 9시 영업종료 1시간을 남겨둔 이진호(35) 사장은 매장문을 일찍 닫았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그가 자영업자 차량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는 “자영업자가 살겠다는 마지막 절규를 보여주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많이 지쳐 보였다.

이 사장은 렌터카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 보험금과 유지비조차 내기 힘들어 최근에 자가용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렌터카까지 이용해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여의도를 향한 이유는 명확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부의 자영업자 방역지침 때문이다.

이 사장과 같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전국적인 차량시위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 외에도 부산과 전북, 경남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행진이 이어졌다. 차량시위를 주체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했다.

전주 출신인 이 사장은 2019년 5월부터

4단계 이후 술집·PC방 매출 ↓
“업종마다 영업시간 다른데...”
“살고 싶다” 힘없는 자들의 절규
수도권·지방 동시 차량행진

PC방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빛을 지고 PC방을 인수한 그는 가게 운영 절반 이상을 코로나19와 함께 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지침으로 매출은 갈수록 급감했고 빛은 줄어들지 않았다. 현재 그의 매장은 피크타임에도 110개의 좌석 중 30석도 채우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통계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후 일주일간 서울시 자영업자의 야간 매출은 2019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자정 무렵 한강대교 위를 건너는 차량 모두 비대위 측에서 요청한 ‘SOS’ 신호로 경적을 울렸



8일 밤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진호(35) 씨가 전국동시차량시위에 합류했다.

다. 이 사장도 힘차게 클랙슨을 눌렀다. 이 사장은 “업종마다 영업시간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획일적으로 통제하냐”며 “거리두기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로 집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마찰도 있었다. 시위 차량은 여의도 방면으로 직진하지 못한다는 경찰의 통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이 검은 문 경찰관에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직진 길이 열렸다.

새벽 1시, 서울교로 자영업자 차량이 집결했다. 양방향 꽉 채운 차들은 다시 한번

더 SOS 신호 경적을 울렸다. 이후 시위 해산을 위해 차들은 국회둔치주차장으로 모였다. 하지만 경찰의 통제로 주차장 출구는 열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과 경찰과의 마찰이 있었다. 주차장을 열어준다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오갔기 때문이다.

결국, 한 시간가량 이어진 대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국회로 차량을 돌렸다. 마지막 SOS 신호 경적으로 차량시위는 새벽 2시 45분 마무리됐다.

이날 시위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은 각기 달랐지만 슬픔은 동일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정 모 씨는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이어서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며 “많이 속상해서 나왔던 건데 끝까지 속상하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호프바를 운영하는 백 모 씨는 “매출이 90%나 감소하고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약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시위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 같아 아쉽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글·사진/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KT, 데이터 기업 ‘엡실론’ 1700억에 인수

10년 만에 대규모 M&A 성사 ‘100兆 규모’ 데이터 시장 공략

KT가 글로벌데이터 전문기업을 1700억 원에 인수하며 인수합병(M&A)을 통해 향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데이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말레이시아 쿠옥(Kuok) 그룹의 글로벌데이터 전문기업 ‘엡실론’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전날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대신증권의 자회사인 대신프라이빗에쿼티(대신PE)와 공동투자로 진행했다.

KT는 엡실론을 글로벌 통신의 필수 분야 기업에 대한 전략적 인수합병(Bolt-on M&A) 일환으로 삼았다. 인수 금액은 1억4500만 달러로 한국 돈으로는 약 1700억 원 수준이다. KT가 이처럼 큰 규모의 M&A에 나선 것은 10여 년 만이다.

엡실론은 2003년 설립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통신사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분기 국사(PoP)를 기반으로

한 본사-지점 연결 글로벌데이터 서비스,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연결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글로벌데이터는 국내외 고객과 해외통신사에 PoP,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등 해외인프라에 기반을 둔 국제전용회선, 이더넷, 가상사설망(VPN), 소프트웨어 정의 광역 네트워크(SD-WAN) 등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글로벌데이터 시장 규모는 72조 원이며 2025년까지 40%가량 성장해 10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글로벌데이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KT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세일즈 역량과 엡실론의 세계 네트워크, 영업거점,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또 KT는 엡실론 인수를 통해 글로벌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역과 고객을 기존의 아시아 중심에서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중소 “공급원가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 안돼”

6.2%만 전부 반영 “연동제 시급”

원자재 등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하는 중소기업이 6.2%에 불과했다. 특히 승강기, 레미콘, 가구 업종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컸다. 해당 업종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재료 급등 피해를 보고 있는 9개 업종을 대상으로 벌인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 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 관계에 있는 승강기, 레미콘, 가구 업종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82.6%, 59.9%, 50.0%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회회사 64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대상 업종은 종이, 가구, 플라스틱, 기계장비, 전기전자,

철강, 비철금속, 레미콘, 승강기 등이다.

대상 중소기업의 96.9%는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상승률은 26.4%이었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조합원사의 45.8%는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반영’은 47.9%, ‘전부 반영’한 기업은 6.2%에 그쳤다.

‘일부 반영’한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 수준은 평균 31.4%로 집계됐다.

중기업계에선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꼽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정위에 보내고 공정위가 계획 중인 납품대금 조정실태 점검 추진 과정에서 납품단가 인상에 애로를 겪는 업종을 중점 관리조사 업종으로 선정해 면밀한 점검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종민 기자 kjm@

참다한 홍삼

추석맞이 할인대전

2021.9.3 금 - 10.5 화

최대 20%

30 | 50 | 100 | 200만원 이상 구매시

*실결제 3% 적립 *N+1구매시 금액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복수구매 할인 중복적용 불가

5+1

클래식 55,000원
50ml x 30개

5+1

홍삼정 마일드스틱 55,000원
10ml x 30개

5+1

홍삼정 스페셜 79,000원
240g x 1개

5+1

홍삼절편 55,000원
20g x 6개

5세까지

5+1

10%

홍키즈 1단계
-110,000원 → 99,000원
330,000원 → 297,000원

6세-9세까지

5+1

10%

홍키즈 2단계
-130,000원 → 108,000원
-360,000원 → 324,000원

10세-13세까지

5+1

10%

홍키즈 3단계
-130,000원 → 117,000원
-390,000원 → 351,000원

5+1

27%

탐클레스 중
-160,000원 → 117,000원
50ml x 30개

5+1

29%

탐클레스 고
-190,000원 → 135,000원
50ml x 30개

참다한 홍삼 T.1661-0308 www.chamdahan.com

참다한 홍삼은 전국 180개 직/가맹점과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기요에서 립스틱을?” 뷰티업계·배달 플랫폼 맞손

아리따움, 요기요와 업무 협약
토니모리·에뛰드는 B마트 입점
CJ올리브영 자체 앱 통해 배달
오프라인 매장 불황 돌파 기대

치킨과 립스틱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시대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뷰티업계의 판매 지형을 바꾸면서다.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뷰티업계가 배달,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으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화장품 판매채널이 화장품 브랜드숍, 헬스앤뷰티(H&B) 스토어 같은 오프라인 중심에서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플랫폼과 신생 패션 뷰티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다. 소비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디지털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밀레니얼 세대까지 포섭하려는 전략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화장품 온라인 거래액은 성장세다. 2017년 9조 5117억 원이었던 뷰티 온라인 거래액은 지난해 12조 4712억 원을 기록하며 31% 가까이 늘었

다. 올해 상반기 누계 기준 역시 6조309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했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은 ‘철수 행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집계 기준 주요 뷰티 오프라인 로드숍 매장수를 보면 2018년 1250개였던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매장은 지난해 1003개로 줄었다. 화장품 로드숍 1세대로 불리던 미샤, 토니모리, 에뛰드 등도 같은 기간 각각 304개, 318개, 370개에서 214개, 223개, 239개로 감소했다.

뷰티 업계는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맞손을 잡고 있다. 온라인 거래액 중에서도 가장 증가폭이 컸던 부분이 배달이었던 만큼 배달 플랫폼 업체에 입점해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물건을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점으로 꼽힌다.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은 이날 ‘요기요’와 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치킨 등 배달음식을 주로 파는 요기요에서 아리따움 매장 제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

연간 화장품 온라인 거래액 (단위: 억 원)



* 출처: 통계청

히 배달 주소를 설정하면 근처 아리따움 매장에서 즉시배상을 통해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를 전국 아리따움 매장으로 확대하고 공동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디비전장 박태호 상무는 “국내 대표 배달앱 요기요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통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고객과 매장의 원활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토니모리, 에뛰드 하우스 등 주요 로드숍 브랜드 역시 배달의민족 B마트에 입점



‘요기요 X 아리따움 업무 협약식’에 참가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디비전장 박태호(오른쪽) 상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박해운 플랫폼사업본부 부사장. 사진제공 아리따움

해 제품을 판매 중이다. 토니모리는 지난해 배달의민족 앱 내 실시간 배송 서비스인 B마트에서 베스트셀러 및 온라인몰에서 판매했던 품목에 대해 빠른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 미샤는 역시 지난해 심부름배달 서비스 김집사와 제휴해 당일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달 가능 접점은 서울 송파와 경기도 수지, 분당, 용인, 수원 등 5개 매장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CJ올리브영은 자체 앱에서 배달 서비스를 키웠다. 올리브영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부터 일찌감치 배달서비스 ‘오늘드림’을 도입했다. 오늘드림은 O2O (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올리브영 온라인 몰과 모바일 앱에서 구매한 상품을 고객 주소지와 가까운 매장에서 배달해준다. 평균 배송 시간은 55분으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빠른 배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늘드림’ 주문 건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12배 증가했다.

에이블리, 브랜드 등 패션 플랫폼에 입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신생 패션 플랫폼이 뷰티 카테고리 속속 론칭하면서 옷과 함께 화장품까지 빠르게 배송해줄자 밀레니얼 세대에겐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투쿨포스쿨 등 1020세대 겨냥 뷰티 브랜드가 ‘브랜드’에 입점해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헤라·라네즈·마몽드·이니스프리 등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우수 제품들 역시 이들 신생 패션 플랫폼 업체에 들어섰다. 성장세도 뚜렷하다. 지난 3월 뷰티 카테고리를 신설한 에이블리는 이 부분이 성장을 주도하며 론칭 초기 대비 7월 기준 거래액이 30배가량 늘었다. 김혜지 기자 heyji@



미스트롯 2 참가자 양지은



수입산 분말이 아닌 좋은 성분 가득한 생알로에만 사용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알로에의 진심을 키웁니다

김정문알로에

주문전화 1588-8870 고객센터 080-022-9191(무로) 공식몰 https://cureofficial.com

가을바람 타고 호빵이 돌아왔다

찬바람 불며 편의점 ‘월동준비’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로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자 편의점들이 예년보다 앞당겨 호빵을 출시하며 동절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가장 먼저 호빵을 출시한 곳은 편의점 CU(씨유)다. CU는 고기호빵 1종을 8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 상품을 시작으로 날씨 변화에 맞춰 순차적으로 호빵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25도 △고기가득만두호빵 △고추잡채만두호빵 △꿀씨앗호빵 △단호박치즈호빵 △오모리김치만두호빵 △소다향호빵 6종과 단팔호빵 등을 포함한 총 10여종을 내놓는다. 렌지업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차별화 상품인 고기가득만두호빵, 고추잡채만두호빵 2종을 9일 먼저 선보이고, 이달 말부터 호빵 찜기를 운영하면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GS25는 올해 자체상표(PB) 인기 상품인 오모리김치찌개라면 맛을 잘 살린 오모리김치만두호빵과 새로운 경험을 쫓는 MZ세대 소비자를 위한 소다향 커스타드 크림의 소다향호빵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을 수 있는 ‘한돈고기호빵’을 우선 판매한 후 이달 말부터 단팔호빵, 꿀고구마호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차별화 상품으로 요리형호빵인 김치제육호빵과 찜갈비호빵도 선보인다.

예년의 경우 호빵의 등장 시기는 9월 말~10월 초였다. 본격적인 추위에 앞선 10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의 60%가량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날씨가 일찍 선선해지고, 코로나19 여파에 집콕족이 늘면서 출시 시기를 앞당겼다.

실제 최근 들어 동절기 상품 판매가 늘고 있다. CU는 이달 들어 8일까지 즉석고구마 매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371.3% 올랐고, 즉석오뎅은 263.6% 뛰었다. 남주현 기자 jooh@

삼립 ‘식빵언니’ 김연경 빵 출시

SPC삼립은배구 황제 김연경 선수를 모델로 발탁한 신제품 ‘식빵언니’를 출시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9일 밝혔다.



‘식빵언니’는 월드클래스 배구 선수 김연경을 모델로 선보인 제품으로 뜨거운 물로 반죽하는 탕종법을 적용해 촉촉하고 찰진 식감을 즐길 수 있다. 김연경 선수 사진과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24종)를 동봉해 수집의 재미도 더했다.

편의점용 제품 패키지에는 ‘식’, ‘빵’을 각각 한 글자씩 새겨 두 개의 제품으로 ‘식빵’ 텍스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식빵언니’는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서도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김혜지 기자 heyji@

KGC인삼공사 안전 검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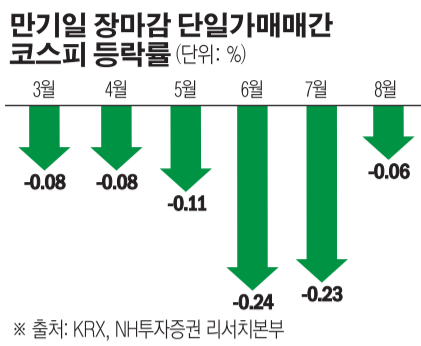
KGC인삼공사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KGC인삼공사는 기존 293항목에 139항목을 추가해 최대 432가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GC인삼공사와 계약을 맺은 4290ha(헥타르) 규모의 9490개소 인삼포지 전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안전성 검사가 적용된다.

국내는 2019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가 엄격해져 정부의 인삼 안전성 기준이 100여건에서 150여건으로 증가했다. 해외에서도 농작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KGC인삼공사는 선제적으로 검사항목을 최대 432가지로 늘렸다.

KGC인삼공사는 강화된 검사항목을 바탕으로 재배지 선정 단계부터 토양 관리에 2년, 인삼을 재배하는 6년을 거쳐 제품이 출하되기까지 총 8년 동안 검사를 7회 실시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네 마녀’ 심술에 시총 상위 18종목 모두 ‘우수수’

코스피 1.53% 내린 3114.7 마감
삼성전자 -1.3% 하이닉스 -2.8%
外人·기관 1조2538억 ‘매물폭탄’
개인 1조2055억 사들이며 방어



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0.25% 떨어진 1034.62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1.31% 하락한 7만 5300원으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 역시 매물 폭탄은 견디지 못했다. 2.83% 급락하며 10만 원대 주가가 위태롭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1.93%), LG화학(-1.06%), 삼성SDI(-2.73%), 현대차(-2.11%), 셀트리온(-1.65%), 기아(-1.60%) 등 시가총액 상위 18위권 내 전 종목에서 파란불이 켜졌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선물·옵션 만기일 외국인의 매도세를 어느 정도 경계해왔다. 통상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한 차익 잔액을 청산하기 위해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한꺼번에 나타나 주가가 급등락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델타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패닉장 가속화’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 물량은 만기에 현물거래가 동반되는 차익 거래성 거래라기보다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공포와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걱정 등이 겹친 데 따른 신흥국 주식시장 하방 위험 해지로 보고 있다.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단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만의 불확실성 변수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중국, 홍콩 등 주요국 증시에서 변동성이 커졌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추석 연휴 직후 9월 FOMC가 예정됐다. 코스피지수 3170선 이탈로 인해 당분간 경계 강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장기 상승추세는 유효하다. 이번 조정이 올해 1월 초 이후 지속한 박스권 등락, 7월 이후 전개된 가격조정 of 마지막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길게 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온다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아 기자 ijh@

9일 ‘네 마녀의 날’을 맞아 코스피는 전 날보다 1.53% 하락한 3114.70으로 마감했다. ‘네 마녀의 심술’이 증시를 흔들었다. ‘네 마녀의 날’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다. 3·6·9·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발생한다.

개인투자자는 1조2055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탄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반등에 나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녀들의 번뜩임을 이겨내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205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물량 1조2538억 원어치를 받아낸 결과다. 코스닥지수 또한 이날 개인투자자가 16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15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세



3110대로 밀린 코스피
코스피가 3일 연속 하락하며 3110대로 밀렸다. 9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48.29포인트(1.53%) 내린 3114.70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2.60포인트(0.25%) 내린 1034.62에 종료했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롯데쇼핑, 한샘 인수 나선다

IMM PEF에 2995억 출자

롯데쇼핑이 한샘 지분 인수를 위해 출자를 결정했다.

롯데쇼핑은 아이엠에프아이비엠티가 설립 예정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2995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다.

롯데쇼핑은 “한샘의 경영권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PEF에 출자하는 건”이라며 “당사는 이사회 결의 이후 아이엠에프아이비에티

에 출자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앞서 1일 한샘 인수전 참여에 대해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샘은 1970년 설립된 국내 가구·인테리어 업체 1위 기업이다. 지난해 2조674억 원의 매출로 3년 만에 ‘2조 원’대를 기록한 후 올해 상반기에도 1조121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샘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2조 원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다시 뛰는 헬스케어 ETF

코로나 백신·치료제 기대감에
‘KRX헬스케어’ 두 달간 3.7% ↑
테마형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
SK바사, 지난달 83.87% ‘껍충’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ETF 수익률 (단위: %, 8월 2일~9월 8일)

종목명	등락률
TIGER 일본TOPIX헬스케어(합성)	12.28
TIGER 미국나스닥바이오	8.22
TIGER 200 헬스케어	7.90
KODEX 미국S&P바이오(합성)	7.40
KBSTAR 헬스케어	6.78
KODEX 바이오	6.40

* 출처: 한국거래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바이오·헬스케어 업종을 담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헬스케어 지수는 7~8월 두달 동안 3.71% 상승했다. 테마형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2.95% 하락했다.

개별 상품으로는 8월 이후 전날까지 TIGER 일본TOPIX헬스케어 펀드가 12.28% 올랐다. 이 ETF는 다케다제약, 오츠카 홀딩스 등 주요 제약회사들을 담고 있다. 또한 TIGER 200 헬스케어도 7.90% 올랐다. 이 펀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등을 편입하고 있다. KBSTAR 헬스케어가 6.78% 상승했고, KODEX 바이오도 6.40% 등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헬스케어와 바이오 업종에 기대감이 수익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다. 이 회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신약후보물질 GBP510은 지난달 10일 국내 임상3상 승인을 받았으며, 이제까지 진행된 임상 결과를 내놨다. 중화항체 형성률 100%, 완치자율률 대비 5~8배의 결과로 이같은 결과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에만 83.87%의 1개월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수탁 생산 뉴스 등이 이어지며 ETF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김형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더나의 mRNA방식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탁생산이 가시화되면서 백신 수탁 기계약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체결한 CEPI, 노바백스 등에 대한 진행 사항과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 역시 적지 않다”면서 “신종 변이가 지속되면서 부스터샷, 다가백신에 대한 이슈가 추후 중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K-OTC, 두울물산 신규 승인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3일 두울물산이 K-OTC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첫 거래일에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30%~50% 범위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후 가격제한폭은 전일 가중평균주가의 ±30%다.

두울물산은 1995년 설립돼 자동차 카페트, 트렁크 트림, 휠가드, 언더커버 등 자동차 내·외장재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등이 주요 매출처다.

두울물산 관계자는 “당사는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1차 납품업체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전가치 전용내장재 등의 개발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며 이번 K-OTC 시장 진입을 통해 회사의 적정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6월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계 139억 원, 부채총계 33억 원, 자본총계 106억 원, 매출액은 105억 원을 기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키움증권,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12월 사업 시행...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발판 마련”

키움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9월 정례회의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이데이터 허가를 획득함에 통해 12월 1일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키움증권 마이데이터는 국내 최대 금융투자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다우키움그룹의 IT·금융 계열사 시너지를 활용해 ‘데이터가 고객 자산을 키우는 패러다임’을 실현하는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키움증권이 자랑하는 ISA 누적수익률 상위를 기록한 로보자산관리와 여유자금을 통한 간편 투자 등 고객 투자 자산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 계열사 역량을 활용해 대출이자 줄이기, 미청구 보험금 확인과 같은 금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플랫폼 중 최대 트래픽을 안전하게 관리해 온 IT 운영

역량과 보안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조직해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키움증권은 이번 마이데이터 허가를 통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에 진입한 키움증권의 역량과 다우키움그룹의 IT 역량을 활용하여 마이데이터 플랫폼 준비중이다. 키움증권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전면 시행되는 12월 1일에 맞추어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이 보유 자산을 성장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메리츠증권, 국고채 30년물 ETN 4종 출시

메리츠증권은 국고채 30년물에 투자하는 ETN(상장지수증권) 4개 종목을 동시에 상장한다고 9일 밝혔다. 장외시장에서 기관 중심으로 거래되는 30년 만기 국고채를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해당상품은 ‘메리츠 국채30년 ETN’, ‘메리츠 레버리지 국채30년 ETN’, ‘메리츠 인버스 국채30년 ETN’과 ‘메리츠 인버스 2X 국채30년 ETN’이다.

‘메리츠 국채30년 ETN’과 ‘메리츠 레버리지 국채30년 ETN’은 국고채 30년물 3개 종목으로 산출한 기초지수에 각각 1배와 2배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메리츠 인버스 국채30년 ETN’과 ‘메리츠 인버스

2X 국채30년 ETN’은 기초지수의 역방향으로 각각 1배와 2배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제가격 하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국고채30년물은 여타 국제 또는 채권형 ETF보다 만기가 긴 ‘초장기 채권’으로, 금리가오르고 내릴 때 가격이 더 크게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인 ‘메리츠 레버리지 국채30년 ETN’과 ‘메리츠 인버스 2X 국채30년 ETN’은 국내 상장지수상품 중 듀레이션이 가장 길어 장기 금리 변동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GTX 말만 나와도...오산까지 급등세

경기도 오산 일대 아파트값이 교통 호재에 힘입어 들쭉이고 있다. 주변 아파트값 급등세로 인한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와 교통 호재 등이 아파트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지자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유치 열기도 상승세를 자극하는 모양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오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6일 기준) 0.76% 상승했다. 지난주(0.80%)보다는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이 일대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한 달 넘게 0.8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이미 20.66%에 달한다. 인근 평택(19.68%), 용인(12.06%), 화성시(14.08%)를 압도하는 수치다.

오산 세교동 세마역 트루엘 더퍼스트 전용 84㎡형은 이달 3일 6억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올해 초 매매가(3억7500만~4억4000만 원)를 감안하면 최대 2억 원 넘게 뛰었다. 외삼미동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전용

경기 오산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84㎡형은 7억4500만 원에 팔린 뒤 현재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가 최고 9억 원에 이른다. 내삼미동 호반베르디움 전용 99㎡형은 지난 6월 7억4500만 원(신고가)에 마지막으로 손바뀜 된 뒤 시세가 10억 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노후 단지나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초 1억5000만 원 안팎에 팔리던 갈곶동 우림아파트 전용 59㎡형은 이달 2억1500만 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했다. 청호동 LG아파트 전용 49㎡형은 지난달 말 1억4800만 원에 팔려 올 초 대비 약 3000만 원가량 올랐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브랜드 바꿔” 시공사 교체 파열음

고급 브랜드 선호, 잇단 계약해지 건설업계 “희소가치 하락” 난감 “무차별 해지 제도적 조정 필요”

아파트 고급 브랜드를 둘러싸고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 간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시장에서 고급 브랜드 바람이 거세지자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정비사업지에서도 브랜드 교체 요구가 늘고 있어서다. 시공사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난색을 보이고 갈등이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시공사 해지 총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다.

신월곡1구역은 이미 지난 2009년 롯데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곳으로 시공사가 제안한 ‘마크원’ 브랜드를 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고급 브랜드인 ‘르엘’이나 ‘갤러리아 포레’를 요구하며 시공사 해임 동의에 나

브랜드를 놓고 시공사와 갈등 빚은 주요 사업지

위치	시공사	개발 유형
서울 성북구 신월곡 1구역	롯데·한화건설	재개발
서울 중구 신당8구역	DL이앤씨	재개발
광주 서구 광천동	DL이앤씨	재개발
부산 금정구 서곡사 5구역	DL이앤씨, SK건설, 한화건설	재개발
부산 금정구 서곡사 6구역	중흥·반도건설 컨소시엄	재개발



섰다. 고급 브랜드 도입이 어렵다면 시공사 계약 해지 수준도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도 7월 DL이앤씨와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e편한세상’ 브랜드를 ‘아크로’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은 지방 정비시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 금정구 서곡사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서곡사5구역과 서곡사6구역이 잇따라 시공사를 교체했다.

서곡사5구역이 기존 시공사와 결별을 선언한 뒤 지난달 포스코·GS건설 컨소시엄을 새 시공사로 맞이했고, 인근 6구역도 기존 시공사(중흥·반도건설 컨소시엄)와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괴정5구역,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도 같은 이유로 시공사와 결별했다.

광주에서는 지역 내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서구 광천동 재개발 사업 조합이 DL이앤씨 컨소시엄(DL이앤씨·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과의 계약 해지에 나섰다. 아크로 적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게 계약 해지의 원인이었다.

정비업계에서 시공사 계약해지 바람이 부는 건 브랜드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급 브랜드가 적용된 아파트는 랜드마크 단지나 대장주 아파트로 분류돼 그 일대 집값 상

승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브랜드가 집값을 더 끌어올린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조합에서 더 좋은 브랜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거나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선별적으로 적용해온 프리미엄 브랜드의 적용 범위를 기준 없이 확대할 경우 프리미엄 브랜드의 희소가치가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다.

일각에선 브랜드를 둘러싼 이런 갈등이 건설사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수주 경쟁에 나섰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먹거리가 줄자 일감 확보를 위해 건설사들이 프리미엄 브랜드 도입을 약속하며 경쟁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고, 이에 너도나도 고급 브랜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 교체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 총 조합원의 50%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지만 시공사를 해지할 때는 이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운 상대적으로 해지가 쉽다”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다섯가지 비타민과 아미노산 탄산으로 순식간에 생기 충전

비타민 C 220mg, 용성비타민P,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B6

생기발랄 탄산드링크! **오로나민 C DRINK**

부드럽고 달콤한 치약산 사탕 발효 레몬 11개분(300g 기준) 비타민 C, 비타민 B2, B6, 아미노산 함유, 인공색소, 보존료 무첨가, 비타민 보호 갈색병

2030 전세대출, 5년새 3배 늘었다

文정권 들어 30대 ‘25조→64조’ 증가 “대출규제 시 피해 우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30세대 전세대출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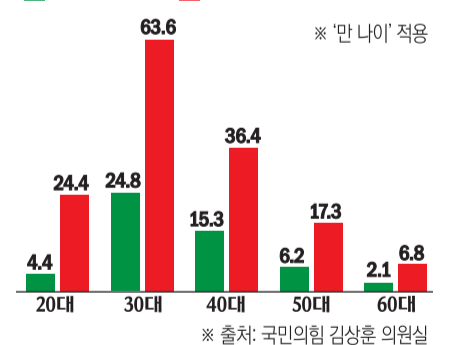
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 52조8189억 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6월 기준 약 2.8배 늘어난 148조5732억 원으로 집계됐다. 4년간 95조7543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했다. 20대의 경우 2017년 6월 4조3891억 원에서 올해 6월 24조3886억 원으로 5.6배 증가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2.8배)의 두 배 규모다. 같은 기간 30대는 24조7847억 원에서 63조6348억 원으로 38조8501억 원 늘어 모든 세대 가운데 전세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2030세대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세 보증금은 총 6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청년층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 2030세대가 매매 대신 전세를 많이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의 1인 가구 비율은 19.1%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30대는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

연령대별 전세대출 잔액 현황 (단위: 조 원,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 기준)



워진 데다 전세난이 겹치며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3분위(가격순으로 5등분 해 중간인 세 번째 가격대) 평균 전세값은 지난달 4억258만 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4억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 주택 3분위 평균 전세값은 2억7942만 원이었다. 4년 3개월 동안 44.1%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골프**®

최대 50yd 더 나가는 제3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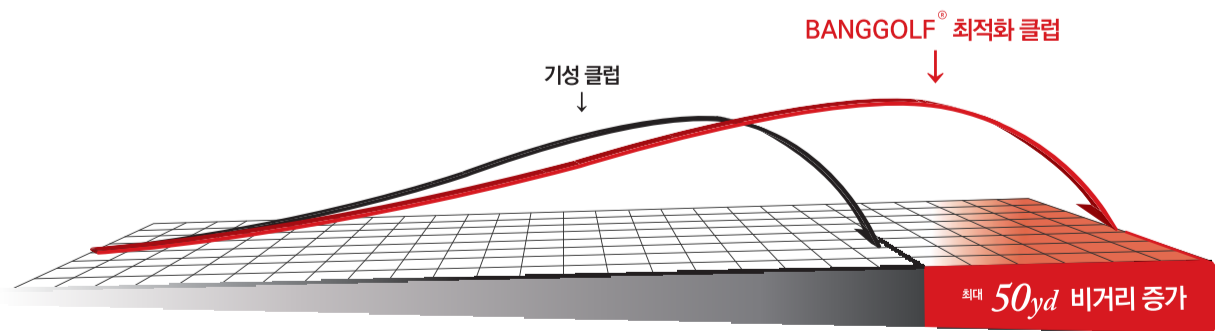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세계 톱 프로만 누리던 2단계의 클럽 최적화
뱅골프의 진화된 3단계 최적화 기술로
아마추어 골퍼도 완벽하게 나에게 맞는 클럽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어느 골프업체도 하지 못한
3단계 최적화 기술로
골프 클럽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모든 클럽 업체가 여자용은 단 1개의 스펙, 남자용은 6-9개의 스펙뿐이라서
모두 똑같은 스펙의 클럽을 사용하는 잘못된 공급과 구매를 반복해 왔습니다

뱅골프는 10,368,000개의 스펙을 보유하고
귀하에게 딱 맞는 사양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상위 0.1% VVIP 고객을 위한 골프클럽 최적화 서비스



골프 클럽 3大 기술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 + 3단계 최적화 기술



내연녀 집 들어가 불륜 대법 “주거침입 아니다”

“현 거주자 승낙” 무죄 원심 확정 동거인 전원 승낙 판례 뒤집어

“법무법인 세무조정반 대상 제외 시행령 조항 무효” 전합 판단도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
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허
락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동거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더라
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
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B 씨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세 차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동 거주자인 B 씨 남편 C
씨의 허가 없이 현관을 통해 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B 씨로부터 승낙을 받
았기 때문에 A 씨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합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일부가 부
재중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

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합의 이번 판결로 동거인 전원의 승낙
을 받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1984년 대법원 판결 등 기존 판례
가 모두 바뀌게 됐다.

이날 전합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
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
하도록 한 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판
단을 내렸다.

전합은 A 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
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취소처분 취소청
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
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 중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 배
제하는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
위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와 이
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1차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신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자격은 자동 부여됐으나 세무대리 업무가
불가능해졌다. 2차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
들은 세무사 등록 불가는 물론 세무사 자
격도 받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받은 1만8000여 명의 변호
사들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놓고 세무사
법 3차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변
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번 판결로 변호사 업계에 힘이 실릴 것으
로 보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박영수 전 특검·검사·언론인 등 ‘가짜 수산업자 의혹’ 6명 송치

경찰, 청탁금지법 수사 마무리 금액 미달 주호영은 무혐의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박영수
전 특검검사 등 현직 검사, 언론인을 포함
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금품을 받
은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
여왔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
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특검
은 대여비용을 제공했다고 해명한 뒤 사의
를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박 전 특
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
오자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
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현 광주
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도 김 씨로부터
명품 지갑, 자녀 학원비 등을 받고 수입차
를 무상 대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동훈 전 조선훈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성섭 TV조
선 앵커는 김 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대여
받고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
됐다.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방송사
기자 A 씨와, 고가 수입차를 무상 대여받
은 일간지 논설위원 B 씨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송치됐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하거나 설 연휴대기, 한우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청탁금지
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에 연루된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
찰서장)도 검찰 송치를 면했다. 경찰은 배
총경이 받은 수산물, 벨트 등이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등
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
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
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후 김 전 의원을 입건해 수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공수처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 규칙 개정

임의적·선택적 수사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 착수 여부
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
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
건의 수사 필요성 분석·검토에 관한 내
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13조 등을 개
정했다.

사건사무규칙 13조 2항은 분석조사담
담검사는 수사처의 수사 개시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
초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
초조사’ 부분을 ‘기초조사’로 수정해 고
발인 등 조사 없이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
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지난 2월 윤 전
총장 등이 2019년 5월 유티머스자산운
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
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검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들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도 공수처
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김 대표가 고발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

사 없이 7·8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어겨 부
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수처는 정치적 목적 등 불순
한 의도가 없고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
은 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
없이 윤 전 총장 사건 수사에 나서 절차
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수처가 입맛
에 따라 선택적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우
려도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의 ‘분석조사담당
검사’도 ‘수사처검사’로 바꿨다. 이에
따라 분석조사실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
부 검사도 수사 착수 판단을 내릴 수 있
게 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민통선 마을 가을걷이

9일 강원 철원군 민통선 마을 내 남북한계선 불과 1000m 떨어진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추수하고 있다. 멀리 보이는 산은 북한 길일성고지다. 연합뉴스

‘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
을 받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
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장훈 부장판
사는 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격이 없는 상태에
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
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
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이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부분과 단독으로 기
소된 부분이 있는데 검사는 이들을 상대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범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소사실과 공범이 아닌 공소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증인을 신청했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들이 종전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 중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은 증인
격이 없이 한 증언으로 봐야 한다”고 판
단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운

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은행장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 원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한 사건이
다. 당시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전달됐
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남산 3억 원
의 보전을 위해 고(故) 이회균 명예회장
명목의 경역자문료를 증액한 것임에도 이
는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
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주도
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불법 요양병원’ 윤석열 장모 보석 석방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
장의 장모 최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
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
가 관련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최 씨는 지난달 13일 “고령이고 치
매 증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재판
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최 씨는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
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이라고 호
소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본인 때문이 아닌 딸의 남편 때문
으로 증인들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 가능성도
없다”며 “불구속 원칙으로 돌아가 방어권
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산악인 박경이

1991년 한국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동계 등정에 성공했으며, 이후 가셔브롬 2봉을 포함한 여러 고봉을 등정했다. 베테랑 산악인 박경이(57)는 교사, 국제 산악스키 심판, 산악전문지 편집장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했고, 현재는 국립산악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산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를 만나서, 그간의 여정과 더불어 알피니즘(Alpinism)의 가치와 매력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한계 넘어 정상 뚫으면 메달보다 큰 성취감 짜릿하죠

친척의 권유로 성적에 맞춰서 교대에 입학했는데, 우연히 들어간 산악부는 삶의 이정표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

“어쩌다 산악인이 됐지만, 뒤돌아보니 그 선택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산악부라고 해서 계곡 가서 기타 치고 노는 동아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부원으로 처음 한 것이 암벽등반이었다. 도봉산의 오봉에 올라가 암벽등반을 처음 했는데, 정말로 아찔했다. 선배들은 가느다란 줄 하나를 믿고 올라오라고 하는데 오금이 절로 저렸다. 가뜰이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엉엉 울다가 내려왔다. 이후에 선배들이 ‘재는 곧 나가겠다’고 했지만 오기가 생겨 이 악물고 버텼다. 그때 신입생으로 13명이 들어왔는데, 2학년 때는 나 포함 3명이 남았다. 당시에 선배들한테 끈기와 실력으로 인정받았다.”

4학년 때는 한국대학산악연맹 부회장을 맡아서 백두대간 종주를 기획했다.

산악 동아리 첫 암벽등반서 울다 내려와 오기로 버텨 4학년때 백두대간 종주 기획 이후 1990년대 ‘백두대간 종주’ 봄 일어

“84학번 선배들이 백두대간과 조선 시대 지리서 ‘산경표’ 연구자인 이우영 선생님과 백두대간 종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만 선배들이 끝내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바로 아래 학번 집행부였던 우리가 이어나갔다. 백두대간 개념이 생소하던 때라서, 집행부가 약 4달 동안 지도 수십 장을 강의실에 깔아놓고 ‘산경표’를 바탕으로 지도의 능선을 잇는 작업을 했다. 지금이야 백두대간이 널리 알려졌지만, 그때는 정보도 없고 개인이나 산악회 차원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백두대간을 15구간으로 나눈 후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지도를 들고 7월에 4박 5일간의 종주를 시작했다.”

지금이야 GPS 기술이 발달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그때는 개념조차 없을 때라 상당히 열악했을 것 같은데 실제론 어땠을까?

“당시 이화령에서 속리산까지 내려가는 구간의 대장이었다. 지도가 있어도 구간의 지형이 불확실한 탓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형을 살펴봤다. 여름이라 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등불 지대를 지나다가 후배들이 배낭에 담아놓은 물통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결국 찾지 못한 채 근처에 있는 오디로 물을 죽였다. 구간에서 잠시 벗어나 샘이 있을 것 같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물을 채워오기도 했다. 당시에 수월하게 종주한 팀이 없었다. 종주 후에 우리가 쓴 보고서가 발표되고, 1990년대부터 백두대간 종주 봄이 일어났다.”

언니와 형, 그리고 가족을 위해

그녀는 건강한 청년들도 올라가면 쓰러진다는 고봉을 두 번이나 올랐다. 첫 원정은 아마다블람(6856m)이었다.

“첫 원정은 제일 좋아하던 4학년 언니와 84학번 형(선배) 때문이었다. 둘과 정말 친했다. 언니는 나랑 통하는 구석이 많았고, 나중에 꼭 히말라야에 같이 가자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형은 에베레스트에서, 언니



는 설악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술만 먹으면 돌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 매일 울었다. 꿈에도 자주 나왔었다. 등반을 통해 그들의 못다 이룬 꿈과 환을 풀어주고 싶었다. 정상에 올랐을 때, 꼭 형과 언니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이후엔 그들이 꿈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언니와 형은 히말라야가 됐다.”

신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히말라야의 고봉, 그곳에 오르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

“두 번째 원정은 히말라야 14좌 중 하나인 가셔브롬 2봉(8035m)으로 갔는데, 정상을 앞두고 얼음 화살이 온몸에 쏘이는 기분이었다. 동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잘려도 정상에 꼭 오르고 싶었다. 학교의 졸업생 대표로 왔다는 책임감, 가족의 회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수 없었다. 흔히 고산에서는 정신을 잃는다고 하는데,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다행히 정상을 찍고 무사히 귀환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지만, 그것이 처음이자 마

지막 8000m가 됐다.

“가셔브롬 2봉은 결혼 후 다녀온 원정이었는데, 당시 위성 전화로 아이들과 통화할 때 매번 눈물이 날 정도로 보고 싶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공황에서 아이들을 마주했는데,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안 놓더라. 엄마의 부재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긴 것 같았다. 만일 내가 혹시 잘못됐을 때 자식들에게 남을 상처를 생각하니 맘이 아팠다. 그때부터는 낮고 안전한 구간의 산으로 다녔다. 산악인이기 전에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산과 사람

8000m를 대신하여 낮고 짧은 구간의 산을 다녔고,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겨울마다 스키를 뒀다. 공교롭게도 산악스키 선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한창 스키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스키를 탈 때가 있었다. 우연히 산악계 선배가 그 모습을 보고 산악스키 아시아컵 대회를 권유했다. 등산과 스키를 워낙 좋아했는데, 둘 다 할 수 있는 장르가 산악스키더라. 당시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어서 장비를 어렵게 구했

다. 발 사이즈보다 큰 부츠라 경기 내내 물집으로 고생했지만, 3위란 기록을 세웠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 산악스키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엔 실업팀 감독으로도 활동했다. 가르치는 게 천성이 것 같다. (웃음) 내 자식에게는 소고기를 못 사줘도 선수들과는 자주 소고기 회식을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산악잡지 편집장, 산악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는데,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산에서 단련하고 쌓아온 경험과 교육자로서의 DNA가 많은 도움을 줬다. 교사를 그만둔 후 운명처럼 교수 제의가 왔는데, 그간 교사와 산악인으로 쌓은 내공 덕분에 무사히 할 수 있었다. 다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제자들과 학교에 미안함이 크다. 편집장 시절엔 전문성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했고, 학에서

가셔브롬 2봉 등정때 죽음의 문턱까지 한계·몰입·성취 3박자가 삶에 큰 행복 마스크 사라지면 가족과 트레킹 가야죠

로서는 산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칫하면 사라질 뻔했던 유물을 박물관 수장고로 가져왔다. 이 모든 건 산을 좋아했기에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산을 통해 연을 맺은 이들의 격려와 신뢰 덕분이었다. 나의 쓰임새를 알아봐 준 이들에게 항상 감사한 맘으로 살고 있다. 그들에게 마음의 빛이 많다.”

경이로운 산

알피니스트로서 30년 이상 산에 올랐는데, 산은 그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산 덕분에 경이로운 삶을 살았다. 등반은 한계를 넘기 위한 행위이자 몰입도가 높은 스포츠다. 한계가 높을수록 도전하는 짜릿함이 크다. 그것을 극복했을 때 생기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가 됐다. 올림픽 메달처럼 외적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적 보상이 크다. 도전을 완수하는 과정, 이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일상에서는 평범한 아줌마 박경이라 할지라도, 산에 올라서 정상에 서는 순간 ‘산악인 박경이’로서 깃발을 꽂는 것이다. 한계, 몰입, 성취. 이 3박자가 내 삶에 큰 행복이었다.”

끝으로 트레킹 입문자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고산 트레킹을 꿈꾸는 중년이 많은데 국내에서도 준비할 수 있다. 겨울의 설악산이나 한라산은 히말라야에 버금가는 강추위와 거친 환경을 자랑한다. 실제로 그곳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 낮더라도 그런 산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마스크가 사라지는 세상이 오면, 가족과 함께 트레킹을 떠나는 것이 소박한 목표다. 공적으로는 여성 산악인의 역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역사에 가려진 여성 산악인을 조명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글/금민수 기자 minsugold@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박경이 제공



마음으로 전하는 풍성한 한가위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수확의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봄 장마와 이어진 폭염으로 올해 농사가 녹록치 않았지만 추석은 이름만으로도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세번째 명절만에 가족과의 만남을 계획하는 이들도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은 지키되 오랫동안 가족과 만날 기대감에 설레는 이들은 일찌감치 추석선물을 준비한다. 혹은 이번에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은 아쉬움을 달래고 정성을 전하기 위해 부모님과 친지를 위한 선물 선택을 고민하기도 한다. 올 추석 역시 유통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선물세트부터 실속형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상품을 준비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특목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색 선물도 눈에 띈다. 한가위 보름달 같은 풍성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추석 맞이 취향저격 선물을 소개한다.



롯데백화점 | 추석 선물세트 1000여종

명인·명촌 협업 특별한 한가위 선물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전점에서 19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올 추석에는 귀성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상품은 물론, 지난 설에 인기있었던 '정육'과 '청과' 품목을 20% 강화해 총 1000여개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먼저 '정육'과 '청과'를 중심으로 국내 한정 생산되는 희귀 품목의 물량을 확보하고, 전국의 명인·명촌과 협업해 롯데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새롭게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전체 한우의 0.04%인 1200두만 한정 사육되는 '제주 흑한우 로얄세트(2kg)'와 '성명례' 명인과 함께 만든 '한우&울릉명이 세트(한우 1.5kg



, 명이자까지 230g)'다.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20~30대)를 위한 트렌디한 건강 선물세트도 판매한다. 또한, 최근 급증한 '캠핑족'을 겨냥해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 선물 세트도 선보인다. 남주현 기자 jooH@

이마트 | 프리미엄 선물세트

한우·청과 등 최상급 상품 집중 편성

이마트가 오는 9월 21일까지 추석 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한다. 올해 추석도 비대면 명절이 예상되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 선호 현상이 커짐에 따라 이마트는 고객이 선호하는 프리미엄 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선물세트의 대표 주자 한우로는 '피코크 WET에이징 한우등심 1+등급 세트'를 25만200원에 선보인다. 초프리미엄 세트도 새롭게 선보여, '피코크 황성축협한우 NO.9 세트'를 80만 원에 판매한다. 과일 선물세트에서는 프리미엄 과일인 사인머스켓 2송이와 제주왕망고 2개로 구성된 '피코크 사인머스켓 제주왕망고 세트'를 카드할인가 9만6600원에, 사인머스켓 1송이와 브라질 애플망고 4개로 구성된 '피코크 사인&애플망고 세트'를 카드할인가 6만



9160원에 판매한다. 수산 선물세트에서도 프리미엄 세트를 찾는 고객들이 늘 것으로 판단해 20만 원 이상 고가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우선 '영광 법성포 붐굴비(굴비 1.3kgX10미)'를 카드할인가 26만8200원에 준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현대백화점 | 비대면 맞춤형 선물세트

VR·라방 등 '집콕 쇼핑' 콘텐츠 강화

현대백화점이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에 나선다. 리테일테크를 활용한 가상현실(VR) 행사장을 선보이는가 하면 라이브커머스 판매 방송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콘텐츠를 강화했다. 현대백화점은 20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전 점포 식품관과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현대식품관 투움·현대H몰에서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추석 명절에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선물세트 품목수도 지난해보다 20% 가량 확대한 1000여 품목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5만~20만원대 온라인 전용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세 배 가량 늘렸다. '현대 한우 소담 송(松)세트(19만원)', '사인머스켓·사과·배 난(蘭)세



트(8만 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에선 10일부터 무역센터점의 추석 선물세트 행사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VR 명절 행사장'을 선보인다. 아울러 명절 선물세트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남주현 기자 jooH@

롯데홈쇼핑 | '추석 마음 한 상' 특집전

HMR·가전·건강식품 인기 품목 선별

롯데홈쇼핑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5일까지 고품질 먹거리, 가정 간편식(HMR)을 비롯해 가전, 건강식품 등 선물용 상품까지 명절 인기 상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추석 마음 한 상' 특집전을 진행한다. 최근 명절 준비가 간소화되면서 가정간편식이 명절 음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일 식품 프로그램 '김나운의 요리조리'에서 선보인 'LA갈비'는 주문금액 3억 원 이상을 달성하며 전체 매진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명절 밥상으로 활용도가 높은 상품부터 프리미엄 간편식까지 인기 상품만을 선별해 계속해



서 선보인다. 11일 오후 12시 40분에는 '해운대 암소갈비'를 판매한다. 12일 오후 3시 레스토랑 간편식(RMR) 프로그램 '테이스티:맛'에선 '최현석 LA갈비'를 선보인다. 또 롯데홈쇼핑은 황성 한우, 청도 반건시 등 지역 특산물을 비롯해 최고 품질의 상품들을 엄선해 선보인다. 10일 오후 9시 45분 '최유라쇼'에서 '황성축협한우 정육세트'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1+등급 한우의 등심, 국거리, 불고기 등 활용도가 높은 부위를 엄선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마트 | 이색 선물세트

프리미엄·비건·친환경 트렌드 반영

롯데마트가 추석을 맞아 최상의 맛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맞이하는 3번째 명절인 만큼 선물세트의 소비 트렌드로 프리미엄, 리미티드, 이색 상품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매 명절마다 인기 세트로 꼽히는 소고기 선물세트는 최고급 품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올해도 그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올해 추석 사전 예약 판매 기간 동안(7월 29일~9월 1일) 프리미엄 소고기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축산 선물세트 프리미엄 라인 물량을 전년 대비 30% 확대해 최고급 세트 상품을 보강했다. 특히 작년 추석 첫 출시된 후 사전 물량 전량 완판



기록을 세웠던 '무항생제 지리산 1++(9) (투블 넘버나인)' 세트는 올 추석에 물량을 30% 이상 늘렸다. '투블넘버나인'은 특급 호텔 및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한우로, 전체 소고기 도축 물량의 약 7% 정도만 나올 만큼 희소성이 높은 상품이기도 하다. 남주현 기자 jooH@

홈플러스 | 실속 선물세트

'3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 65%로 확대

홈플러스는 추석을 맞아 22일까지 전국 점포와 온라인 채널에서 선물세트 본판매를 실시한다. 가격대는 가볍게 선물하게 좋은 1만 원대 상품부터 품격 있는 10만 원 이상 상품까지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3만 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약 65%로 늘렸다. 고객의 다양한 구매 수량에 따라 동일 상품을 하나 더 증정하는 1+1, 3+1, 4+1, 5+1, 9+1, 10+1 행사도 마련했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대표 스테디셀러 상품으로는 △나주배 세트(5만5000원) △GAP 사과배 혼합세트(5만4000원) △해동찬가멸치&거름도미역 선물세트(3만9900원) △농협안심한우 정육갈비혼합 냉동세트(15만6000원) △CJ 특별한 선택 JH호(3만6330원)



△동원 건강한 15호(4만8500원) 등이 있다. 추석 선물 고급화 바람에 힘입어 프리미엄 과일 사인머스켓을 포함한 세트를 선보인다. △샤르츠 콰트로 혼합세트(9만9000원) △샤르츠 트리플 혼합세트(5만9000원) △프리미엄 사인머스켓 세트(5만9000원) 등을 판매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LG생활건강 | 화장품 베스트셀러

진한 보습력으로 초가를 지친 피부 케어

LG생활건강이 추석을 맞아 브랜드별 베스트셀러로 구성된 화장품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스킨 릴리프 뷰티 브랜드 '비온드'는 포근한 머스크 향과 진한 보습력으로 건조하고 지친 피부를 케어해 줄 '비온드 딥모이스처 플라인업 플러스 세트(딥모이

스처 샤워크림 600ml, 바디 에멀전 600ml, 핸드크림 100ml, 8만 원)를 선보였다.

'딥모이스처'는 라이스밀크, 꿀, 올리브 추출물이 함유돼 건조하고 갈라지는 피부에 윤기를 더하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비온드의 베스트셀러 바디 라인으



로, 포근한 화이트 머스크 향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스페셜 세트는 '딥모이스처' 샤워크림과 에멀전이 최다 용량으로 담겨 환절기 건조한 바디 피부가 걱정되는 시기에 넉넉한 용량으로

피부 보습케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핸드크림과 바디 미스트까지 내장돼 포근한 머스크 향으로 보습 케어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벨머'는 피부 밸런스 케어를 통해 민감해진 피부 진정과 손상 케어를 돕는 '닥터벨머 어드밴스드 시카 기초 2종 세트(어드밴스드 시카 토너 150ml, 어드밴스드 시카 에멀전 150ml, 4만 원대)'를 선보였다. 닥터벨머 어드밴스드 시카 토너와 에멀전으로 구성된 2종 세트는 병풀 추출 성분, 베타인, 판테놀을 함유한 포뮬러로 피부 밸런스 케어를 도와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시카 밸런싱 솔루션을 제공한다. 박미선 기자 only@

아모레퍼시픽 | '설화수' 선물세트

어머님께 안티에이징 선물하세요

아모레퍼시픽의 럭셔리 뷰티브랜드 설화수가 '2021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국내외 베스트셀러 제품인 자음생 라인, 윤조에센스부터 프리미엄 진설 라인까지 다채롭게 준비했다.

설화수 자음생 2종 세트는 피부 자생력을 키워 흔들림 없는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탄력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세트다. 독보적인 진세노믹스의 피부 자생력으로 탄탄한 피부를 가꿔준다. 증삼수가 기존 대비 105%로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설화수 자음생 3종 세트는 충분한 보습으로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찾아주고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에센셜 스킨케어 세트다. 윤조에센스는 피부 장벽을 케어해 더 힘 있는 피부를 선사한다.

설화수 진설 2종 세트는 강인한 적송에서 얻어낸



피부 생명 강화, 안티에이징 성분이 피부 힘을 키워 젊고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토탈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세트다. 본품으로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스킨 '진설수'와 보습과 영양을 채워 피부결을 매끈하게 가꿔주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로션 '진설유액'이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CJ제일제당 | 추석 선물세트 270여종

친환경 포장재에 놀리 담은 실속

CJ제일제당이 추석을 맞아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선물세트 270여 종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역대 CJ제일제당 선물세트 중 가장 슬림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만난다.

CJ제일제당은 올 추석 선물세트에서 지난해 추석 대비 총 467톤의 플라스틱을 줄였다. 신용카드(한 장당 약 5g)로 환산하면 930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우선 쇼핑백 소재를 플라스틱의 일종(폴리프로필렌, PP)인 부직포에서 종이로 대부분 바꿔 플라스틱을 136톤 절감했다. 또한, 선물세트 효과 아이템인 '스팸'의 노란 뚜껑도 지난해 추석에 비해 대폭 줄였다. 이번 스팸 선물세트 중 90%에 가까운 물량이 뚜껑이 없는 것으로, 120g 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실속 있는 구성도 눈에 띈다. 명절 스테디셀러 '스팸 세트'와 3종 이상의 인기 제품으로 꾸린 '복합 세트', '한부리 흑삼 세트' 등 건강식품 판매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대와 다양한 제품을 앞세운 세트들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동원F&B | '동원 추석 선물세트' 200여종

'고단백·저나트륨' 건강한 상품 구성

동원F&B가 추석을 맞아 건강과 품격을 담은 '동원 추석 선물세트' 200여 종을 선보였다.

동원F&B는 건강한 명절 선물세트를 컨셉으로 고단백 건강식품 '동원참치' 선물세트와 짜지 않아 건강한 고급 캔햄 '리챔' 선물세트에 주력한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완전히 없앤 '올페이퍼 패키지 (All-paper package)' 선물세트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동원 MSC인증 가다랑어 사용 참치 세트'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친환경 선물세트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MZ세대를 겨냥해 고단백 식품으로 구성된 '동원 스페셜 19호'와 뉴트로(Newtro) 컨셉의 '동원참치 뉴트로세트', 한정판 디자인의 '리챔2호 배드브스 에디션' 등 다채로운 선물세트도 함께 출시



했다. '동원 추석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동원참치'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이다. 동원참치 150g에는 28g의 단백질이 들어 있다. 성인 단백질 일일 권장량 55g의 절반 이상을 동원참치 한 캔만으로 섭취할 수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매일유업 | 골(骨)든밀크

하루 두 잔, 부모님 뼈 건강 지킴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칼슘을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한다는 통계가 있다. 특히 칼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50~60대 성인 여성의 하루 칼슘 섭취량은 486.5mg으로 실제 필요한 1일 칼슘 섭취량(600mg)에 크게 못 미친다.

매일유업은 이같은 실태에 착안해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골(骨)든밀크'를 개발했다. 50여 년 유가공 업력과 영양 설계 비결을 기반으로 뼈 건강만을 위한 특화 상품으로 부모님 및 친인척들에게 추석 선물로 제격이다. 분말 타입의 골든밀크는 하루 두 잔(한 잔 125ml 기준)만으로 칼슘과 비타민D 일일 권장량(칼슘 800mg, 비타민D 800IU)을 100% 충족할 수 있는 뼈 건강 안심 솔루션이다. 아연, 비타민 B1, 니아신도 일일 권장량 100%를 함유했다. 칼슘 섭취량뿐 아니



라 체내 흡수도 고려해 100% 밀크칼슘을 사용했다. 골든밀크는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은 우유칼슘을 사용한 것은 물론, 유제품 소화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 소화 흡수가 편한 유당 0% 락토프리 밀크 파우더를 사용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한성기업 | 명란한 떡갈비

육지+바다 이색 조합... 간식·밥 반찬 탁월

한성기업이 지난달 출시한 '명란한 떡갈비'가 온·오프라인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명란한 떡갈비는 명란의 깊은 맛과 부드럽고 고소한 갈빗살이 어우러진 제품이다. 신선한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했고 갈빗살 함량을 늘려 부드러움과 풍미를 더했다. 각종 채소와 고기를 갈지 않고, 썰어 넣어 식감을 살렸다.

명란의 깊은 맛과 부드럽고 고소



한 갈빗살이 어우러진 명란한 떡갈비는 육지와 바다의 이색 조합이라는 입소문을 타며 호평을 받았다.

명란을 연상케 하는 모양 역시 차별화된 특징이다.

동그란 형태의 다른 떡갈비 제품들과 달리 손으로 빚어낸 듯한 두툼하고, 기다란 모양으로 다양한 레시피에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흡수, 홈 파티 문화가 자리 잡으며 격식 있는 고급 안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샐러드나 빵과 곁들였을 때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

고급 간식, 밥반찬, 안주 등 활용도는 다양하지만, 조리법은 간단하다. 전자레인지에서도 조리할 수 있으며, 에어프라이어에서는 10분간 조리하거나 프라이팬에서 8분만 구워내면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hy | 온라인몰 '프레딧'

16일까지 추석 셀렉션 최대 48% 할인

명절이 다가오면 가까운 지인과 친인척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고민 해소를 위해 hy(한국야쿠르트)가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했다.

hy는 추석을 맞아 16일까지 특별 할인전을 진행한다. 온라인몰 '프레딧(Fredit)'에서 최대 48% 할인된 가격으로 추석 셀렉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 '프레딧클럽' 가입 시 최대 20%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발효 홍삼 등 건강 기능식품을 포함해 케어푸드, 밀키트, 제수용품 세트



까지 풍성하게 준비했다. 뷰티&바디,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46가지 제품은 브랜드별 기프트 박스에 담아 딱 채운 속만큼 겉 포장도 눈길을 끈다.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선물하기' 혜택도 강화했다. 선물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해 주며 받는 사람이 프레딧에 신규 가입할 경우 5000 원의 추가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물하기 이용 금액대별(△10만원 △30만원 △50만원)로 약 2만 원대부터 11만 원 상당의 추가 상품도 증정한다. 강태우 수습기자 burning@

하이틴진로 | 일품진로 21년산

100% 증류원액 선별해 21년 숙성

하이틴진로의 프리미엄 증류소주 '일품진로'는 뛰어난 풍미와 맛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에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일품진로는 증류 초기와 말기의 원액은 과감히 버리고 향과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 원액만 사용했다. 100% 순쌀증류원액을 냉동 여과공법으로 영하의 온도에서 잡미, 불순물을 제거해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과 은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인 '몽드셀렉션'에서 2019년부터 3년 연속 증류주 부문 대상을 수상,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로서 품질력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이틴진로는 2006년 일품진로를 출시해 국내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올해 3월에는 프리미엄 증류주의 대표 브랜드로 사랑받아 온 일품진로1924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 출시하고, 제품명도 일품진로로 바꿨다.

7월 한정판으로 내놓은 일품진로 21년산은 소주 시장의 품질향상을 위해 하이틴진로의 양조기술로 개발한 프리미엄 소주로 8000병을 출시했다.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층 원액만을 선별해 21년 이상 숙성한 제품으로 목통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교체하는 등 긴 시간 동안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 탄생했다. 하이틴진로는 한정판 일품진로출시를

통해 슈퍼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고 일품진로 브랜드를 지속해서 확장 중이다.

하이틴진로 마케팅실의 오성택 상무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참이슬, 진로 등 일반 소주부터 일품진로 등의 최상급 프리미엄 소주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참다한홍삼 | 참다한 홍삼정 프리미엄스틱

홍삼 통째 같이 영양분 고스란히 담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생산·판매되는 원료는 홍삼이다.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 참다한홍삼의 '참다한 홍삼정 프리미엄스틱'은 참다한의 스테디셀러인 홍삼정 농축액을 간편하게 짜 먹을 수 있도록 스틱 타입으로 만든 제품이다. 홍삼을 물에 넣고 달이는 일반 제조법 대신 홍삼을 통째로 갈아넣는 온체식(macrobiotic) 제조법과 초미세분쇄기술을 사용해 높은 수준의 품질력을 자랑한다.

일반적으로 홍삼은 물에 넣고 달이면 물에 녹는 56.4%의 수용성 성분만 추출할 수 있다. 나머지 물에 녹지 않는 43.6%의 불용성 성분은 달이고 남은 홍삼박(홍삼건더기)에 남은 채 그대로 버려진다. 반면 온체식 제조법은 버려지는 홍삼박 없이 홍삼의 모든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홍삼의 수용성 성분은 물론이고 물 달일 할 때 버려졌던 홍삼박 속 불용성 영양분까지 그대로 제품에 담아내 영양 함량이 높다. 홍삼을 통째로 갈 때 일반 분쇄가 아닌 초미세분쇄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흡수율도 높아진다. 참다한은 홍삼 입자를 세포보다 작은 7~8 마이크로미터(μm)까지 잘게 분쇄, 평소 소화 효소가 부족해 홍삼 성분을 잘 흡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입자 크기를 최소화했다.

참다한은 다음달 5일까지 추석맞이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중 30만 원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는 최대 20% 할인 혜택을 주고, 참다한 클래식, 마일드스틱, 홍삼절편, 홍삼정스페셜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 5+1 추가 증정 이벤트와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유혜은 기자 euna@

애경산업 | 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

소독티슈·겔·마스크...코로나 예방 기원

애경산업의 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LABCCiN)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세정·항균 제품 및 개인 위생 관리 제품 등을 한데 모은 '랩신 위생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랩신 위생세트는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등이 포함된 기본적인 손 위생 관리 제품들과 마스크 등을 포함한 2만~3만 원대 부담 없는 실속형 세트부터 황사마스크(KF94) 제품을 포함한 풍부한 구성의 4만 원대 고급형 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됐다.

랩신 위생선물세트는 △'랩신 V3 컬러제인징 포밍 핸드워시' △'랩신 V3 손소독티슈' △'랩신 V3 세니타이저 겔' △'황사마스크(KF94)' 등으로 구성됐고, 고급형 선물세트 2종과 실속형 선물세트 3종으로 이뤄졌다.

랩신 위생세트 고급형 1호와 2호는 랩신의 위생 제품을 고루 갖춘 위생 선물세트로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기 적합하다. 세니



타이저 겔, 핸드워시, 손소독티슈, 등의 기본 구성에 1호에는 일회용 마스크, 2호에는 황사 방역 마스크(KF94)가 포함됐다.

실속형 2호는 핸드워시, 세니타이저 겔, 일회용 마스크를 담았다. KF-AD 위생 실속 세트와 KF94 위생 실속 세트는 손 소독 티슈, 핸드워시, 손소독 겔에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황사 방역 마스크(KF94)가 들어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SPC | 바스킨라빈스 아이스 송편·절편

송편도 아이스크림 버전으로 색다르게

SPC그룹이 운영하는 바스킨라빈스가 추석을 맞아 '아이스 송편'과 '아이스 절편'을 출시하고, 풍성한 구성의 추석 선물세트 3종을 준비했다.

'아이스 송편'과 '아이스 절편'은 추석 대표 음식 '송편'과 '절편'을 바스킨라빈스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활용해 새롭게 구현한 제품이다.

세 가지 맛으로 만나볼 수 있는 '아이스 송편'은 송편 모양의 쫄쫄한 찹쌀떡 속에 참깨, 밤, 고구마를 원료로 활용한 아이스크림을 각각 넣었다. 한 박스 기본 구성은 참깨 아이스 송편(2개), 밤 아이스 송편(1개), 고구마 아이스 송편(1개)로 총 4개들이로 제공된다. '아이스 절편'은 절편 모양의 찹쌀떡 속에 백앙금 리본이 들어 있는 인절미 아이스크림, 팥 아이스크림을 넣은 제품이다. 한 박스 기본 구성은 맛별로 1개씩 구성됐다.

바스킨라빈스는 명절 선물로 건네기 좋은 추석 선물 세트 구성도 선보인다. △아이스 송편세트 △아이스 절편&송편세트(절편 2박스, 송편 1박스) △아



이스 송편&절편세트(송편2박스, 절편 1박스) 등 3종이다. 바스킨라빈스의 모든 추석 선물 세트는 색동 저고리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의 상자에 담아 제공된다.

추석 선물세트 출시를 기념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22일)까지 매장에서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을 제시하면, 추석 선물세트 2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KGC인삼공사 | 건강 선물세트 '다보록(多寶錄)'

홍삼·녹용 취향 따라 세 가지 세트 구성

명절에 가장 많이 선물하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홍삼이다. 하지만 수많은 종류 탓에 어떤 홍삼을 골라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고자 KGC인삼공사는 추석을 맞아 함께 하고픈 마음 담아, 건강한 추석 되세요' 프로모션을 22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건강 선물세트 '다보록(多寶錄)'을 준비했다. 다보록은 '진심으로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모음집'이라는 뜻이다.

정관장 다보록은 홍삼, 녹용, 버섯 등 다양한 건기식 원료 및 제형으로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보록은 △감사편 △여유편 △특별편 세트로 나뉘며 각각 선물세트에 어울리는 삽화를 삽입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우선 감사편은 홍삼 제품 위주로 구성된 일반형 세트 제품으로 홍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대표적인 홍삼 농축액 제품 '홍삼정 리미티드', '홍삼정', '홍삼정 에브리타임' 등과 함께 '홍삼톤'과 같이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파우치 제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유편은 홍삼 제품과 함께 한방 소재가 함께 구성된



보완형 세트 제품이다. 정관장 대표 홍삼 제품인 '홍삼톤 골드', 녹용 제품인 '천녹용' 등 정관장의 인기 품목들로 구성된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선물세트다. 특별편은 홍삼의 기능성과 함께 특정 효능 소재의 제품이 추가로 구성된 세트 제품이다. '홍천옹 건', '화애락 본' 등 부부가 함께 서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금슬' 세트부터 '화애락 본'과 '홍삼담은 석류스틱' 등 여성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된 '가인' 세트 등이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사조대림 | 사조 안심 특선 선물세트

참치·햄에 참기름·간장 더한 친환경 선물

명절 선물세트 단골손님인 참치와 캔햄이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사조대림은 친환경 이슈와 코로나19로 변화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사조 추석 선물세트 100여 종을 선보였다. 사조대림의 이번 추석 선물 키워드는 △실용·실속 △환경보호 △변화와 상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조대림은 합리적이고 실속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할인·증정행사를 확대했다. 특히 '집콕족'이 늘어난 만큼 참치, 캔햄 등 간편 제품과 올리브당, 참기름, 간장 등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담은 '사조 안심 특선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사조 안심 특선 선물세트들은 △순다칠 걱정 없는 안전한 참치캔 '사조참치 안심파게' △해표 고급유 △100% 국산 돼지고기 한돈으로 만든 프리미엄 캔햄 안심팜과 함께 참기름, 올리브당, 식초, 구운소금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1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형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도 선보이며 선택의 폭도 넓혔다. 강태우 기자 burning@



특히 사조는 환경보호 동참 및 친환경 경영실천을 위해 프리미엄 캔햄 안심팜의 뚜껑을 제거한 '뚜껑 없는 안심팜'을 처음 선보였다. 사조 대표 제품 6종을 담은 '안심특선 V62호'에서 만날 수 있다.

유희성 사조대림 마케팅팀 담당은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한 만큼 사조 추석 선물세트와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스와니코코 | 멀티 솔루션 비타민 톤 업 크림

답답함 줄이고 산뜻함 살린 '톤 업 크림'

화장품 브랜드 스와니코코에서 '멀티 솔루션 비타민 톤 업 크림'을 출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 기간이 늘면서 자극적인 피부 화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객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 이에 스와니코코는 답답함은 줄이고 산뜻함은 살린 톤 업 크림을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정제수 대신 비타민나무 열매추출물이 풍부하게 함유돼 비타민 성분을 느낄 수 있고,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장점만 뽑아낸 혼합자차로 자극 없이 생활 자외선도 차단해준다.

스와니코코 제품개발 담당자는 "끈적임이나 백탁 현상 없이 저녁까지 지속되는 산뜻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톤 업을 통해 커버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스와니코코 멀티 솔루션 비타민 톤 업 크림은 간편하게 바르기도 좋지만, 얼굴 전체에 퍼 발라준 뒤 자외선에 특히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한 겹 더 발라주면 강한 자외선 케어가 가능하다. 갈라민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가 뒤집혔거나 화끈거릴 때 발라주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겁지 않고 가벼운 제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쿠션을 바른 피부 위에 얇게 발라도 생기는 자연스러운 톤 업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멀티 솔루션 비타민 톤 업 크림은 마지막까지 사용 후 용기에 남은 불필요한 내용물을 줄이기 위해 튜브 펌프 용기로 만들어졌다. 공식 쇼핑몰에서 상시 구매가 가능하다. 박미선 기자 only@

유한양행 | 와이즈바이옴

17종 혼합 '프리미엄 유산균' 장 건강 개선

유한양행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업 이념 아래 국민 장(腸) 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유한양행은 유산균 브랜드 '와이즈바이옴(Y's BIOME)'을 론칭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유산균 제품을 선보였다. '유한양행이 제안하는 건강을 위한 똑똑한 습관'이라는 뜻을 가진 와이즈바이옴에는 17종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유한양행의 다양한 유익균 배합 노하우가 담겼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존재하는 중요한 신체기관으로 무엇보다 건강한 장을 유지하려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지켜야 한다. 밸런스가 무너지면 면역력 및 장 기능 저하, 설사 유발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이 '장내 밸런스'를 맞추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해결사로 떠올랐다.

건강한 한국인 성인과 유아의 장으로부터 분리한 유산균, 모유와 발효식품 유래 유익균 등 유한 복합 균주 처방인 17종 혼합 유산균을 기초 성분으로 담았다. 특히 유한 복합 균주에는 특허받은 유산균 7종을 과학적 기술로 배합하고 뼈 건강을 위한 아연과 비타



민D 등도 추가했다.

유한양행의 와이즈바이옴은 골드플러스, 패밀리, 더블유(W), 키즈 등 4종으로 출시됐다. 이 제품들은 최적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제공한다. 골드플러스 100억, 온 가족용 패밀리 50억, 여성용 더블유 50억, 키즈 10억 마리 보장균수를 바탕으로 온 가족의 장 건강을 책임진다. 특히 비피더스균 함량을 높여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배합을 45:55로 맞추면서 유해균의 독소 생성 억제 및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준다. 강태우 기자 burning@

동아제약 | 베나치오

과식·소화불량 잘 듣는 액상 소화제

추석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들이 열량이 높고 기름기가 많은 것들이 대부분으로, 들뜬 명절 분위기에 자칫 평소보다 과식하기 쉽다. 모처럼 긴 연휴지만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문 상태에서 과식을 하면 더부룩함과 메스꺼움 등 소화불량을 겪을 수 있다.

동아제약의 액상 소화제 '베나치오'는 '아픈 배가 낫지오'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제품에는 창출, 육계, 건강, 진피, 회향, 현호색, 감초 등 각종 생약 추출물이 들어있다. 회향은 담습분비를 촉진해 기름진 음식, 육류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탄산이 없어 위에 주는 자극이 적다.

베나치오는 국내 액상 소화제 최초로 2014년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환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소화불량 증상이 개선됐으며, 식후 조기 포만감과 속쓰림, 가슴통증 등의 상 복부 이상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은 2009년 많은 용량을 한번에 먹기 힘든 여성과 노인층을 위해 베나치오액(20ml) 제품을 출시했으며, 2012년 베나치오에프액(75ml) 제품을 추가 발매했다. 2015년에는 액상 소화제와 함께 복용할 수 있는 '베나치오 세립'을 선보이며 소화제 시장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베나치오는 1.5초당 1병씩 팔리는 소화제로 2019년 연간 판매량 2000만 병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동성제약 | 갈릭MF

180일간 네 번 발효한 국내산 마늘 추출액

동성제약이 올 추석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가열 무설탕 마늘 발효 추출액 '갈릭MF'를 명절 선물로 내놨다.

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대표 성분 '알리신'이 매운맛과 특유의 냄새를 내지만 △항암 효과 △혈액 순환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 △당뇨병 개선 △소화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갈릭MF는 180일 동안 네 번 발효시킨 순수 마늘 발효액으로 △면역력 강화 △장 운동 강화 △혈액 순환 △불면 해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가열 발효 속성으로 영양 성분이 약 600% 증폭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로운 2차 합성 물질 산화질소와 NK세포가 생성된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 근육을 이완해 혈액 순환을 돕는다. NK세포는 림프구 약 10~30%를 차지하고 있고 암 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다.



갈릭MF는 맛과 냄새가 없어 마늘 향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다. 1상자 30병으로 구성돼 1일 1~3회, 1회 1병(23ml)을 섭취하면 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마늘은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로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많다"라며 "갈릭MF는 100% 국내산 마늘을 엄선해 만든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MZ세대에게 안성맞춤 명절 선물"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중외제약 | 액티브라이프 눈건강

눈 피로 줄여 '젊은 노안' 속도 늦춘다

눈은 대개 40대 이후 노화가 시작되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TV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2030세대 '젊은 노안'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눈과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하는 만큼 눈의 피로도를 높이는데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노화는 급속도로 진행된다.

눈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습관이 중요하다. 눈이 너무 건조할 때는 물을 자주 마셔 체내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고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영양 보충을 통해 소실되는 안구 구성 물질을 채워줘야 한다. 눈에 좋은 아스타잔틴과 루테인이 들어간 식품이나 영양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JW중외제약의 '액티브라이프 눈건강'은 루테인, 아스타잔틴 등을 주원료로 눈 건강에 필요한 9가지 성분이 함유된 복합 기능성 제품이다.

마리골드꽃에서 추출한 루테인은 망막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밀도를 높여 눈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아스타잔틴은 눈 근육의 수축·이완 조절력을 돕고, 망막의 혈류를 개선해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

이밖에도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응을 위해 필요한 비타민A,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E, 결명자추출물분말, 빌베리추출물분말, 정제어유 등 6종도 더해 복합적인 눈 건강관리를 돕는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 제품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장시간 사용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노화로 사물이 희미해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한미약품 | 비엘비정

활성비타민 하루 한 알로 활기차게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을 위한 활성비타민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한미약품의 고품질 활성형 메가비타민 '비엘비정'은 육체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 활성형 벤포티아민 110mg와 체내 에너지 합성에 도움을 주는 리보플라빈 100mg,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을 주는 피리독신염산염이 100mg가 함유됐다. 또한, 비타민 C와 코엔자임Q10, 비타민D, 아연, 셀레늄 등 19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돼 불균형한 생활 습관 속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균형있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복용 편의성을 높여 하루 한 알로 육체피로와 체력 저하, 근육-관절-신경통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만 8세 이상이면 복용할 수 있다.

비엘비정은 '더 나은 비타민, 더 나은 하루(Better Life with Vitamin)'의 앞글자를 따 지은 이름으로, 만성피로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하루 한 알로 활기찬 하루를 제공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며 "비엘비정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 영양 성분을 하루 한 알로 균형감 있게 복용할 수 있는 현대인 맞춤형 비타민"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다. 의약품 영업마케팅 전문회사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된다.

유혜은 기자 euna@



2021년 신제품

한번의 터치로 더 넓게 빠르게!
비나 땀에도 흘러내리지 않는 방수 피막제 특허!
블랙푸드 콤플렉스 4종으로 충분한 영양 공급!
4가지 단백질 함유로 부드럽고 광택 나는 모발!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 라이트브라운 3가지 컬러 구상!



특수 설계된 브러쉬
특허받은 브러쉬 디자인으로
두피 문음, 여러 번 덧칠 필요 없이
한번에 커버 가능합니다



티나는 새치걱정! 세븐에이트로 PICK! 세븐에이트 새치커버틴트

여러 번 덧발라야하고, 딱지고, 티나고...“이럴거면 그냥 염색할 걸”



기존 새치머리 커버 제품에 불만이 있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동성제약 세븐에이트 새치커버틴트는 스펀지 내장형 특수 브러쉬 설계로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빠르게 커버해줍니다.
뛰어난 지속력은 물론, 건조 후 모발이 굳지 않아 자연스러운 연출까지!
동성제약 세븐에이트 새치커버틴트는 다릅니다.

동성제약 64년, 염모제 기술은 다릅니다 - 세븐에이트 새치커버틴트



특허 받은 특수설계 브러쉬
브러쉬 사이 스펀지 내장으로 넓은 면적을
빠르게 커버 (특허 제30-1095802호)



방수 피막제 특허
비나 땀에도 흘러내리지 않아 보다
오래 가는 지속력 (특허 제10-0863324호)



블랙푸드 콤플렉스 4종
검은깨 · 흑미 · 블랙베리 · 블랙커런트
추출물로 모발에 충분한 영양 공급



4가지 단백질 함유
케라틴, 콜라겐, 실크, 콘키울린단백질
함유로 부드럽고 광택 나는 모발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

라이트브라운



김수원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국가는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고, 모든 인간이 삶의 전 과정을 인간답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노력이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각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도 상호의존적이며 소통해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 누구는 빼고 우리끼리 잘 살자는 집단적 이기심을 넘어서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마리의 흥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프란츠 카프카의 중편소설 ‘변신’의 유명한 첫 대목이다.

그에게 어쩌다가 왜 끔찍한 변신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유의 생략은 변신이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임의성을 부여해 준다.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송두리째 바뀌 놓고 기존의 삶에서 우리를 단절시키는 일시적이거나 혹은 영구적인 사건이 어느 날 문득 일어나는 것처럼.

별레가 되기 전,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열심히 돈을 벌어 가까이 돈을 내놓았다.

처음으로 탁자 위에 돈을 올려 놓았을 때 가족 모두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그러나 이내 익숙해져 갔다. 식구들은 고마워하면서도 그때만큼 행복해하지는 않았고 당연한 듯 돈을 받았다.

가족들은 흥측한 별레가 된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고, 최소한의 먹을 것을 가져다줄 뿐이다. 그의 마음은 자신에 대한 염려보다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지만, 어쩌면 기우였다.

흥측한 별레로의 변신이라는 설정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의 입장에 온전히 공감

할 수 있게 해준다. 한때 내 아들, 내 오빠였지만 이제는 점차 정말 별레 이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의 사고와 내면은 여전히 온전한 인간이었다. 어느 날 거대한 벌레로 살아가야 하는 그의 편의를 위해 가족이 방 안의 가구를 모두 치워버린다.

카프카의 ‘변신’이 출간된 것은 1916년, 무려 한 세기 전이지만 삶과 관계에 대한 울림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변함없이 생생하다. 어느 날 벌레가 된 그레고리 잠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에서 현실로 돌아와 본다.

상호의존적 복지국가

그러나 거기에서 안도하기는 이른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사고, 불운, 질병, 노화와 죽음이 가져올 변신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는 여전히 남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국가는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고, 모든 인간이 삶의 전 과정을 인간답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노력이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각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도 상호의존적이며 소통해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 누구는 빼고 우리끼리 잘 살자는 집단적 이기심을 넘어서는 것이다.

대방로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외교의 새로운 전환

이 알고 있어 놀랐다. 알고 보니 미국 농무부 지원으로 한국 농업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한 것이다. 미시간 주립대학의 존슨, 조지 로스밀러 교수가 중심이 돼 한국 농업 생산, 인구, 곡물 등을 종합 분석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간 농업외교는 식량과 기술 지원 중심이었고 성과도 많았다. 대한민국의 식량 증산 성공 사례와 노후에 대한 후진국들의 러브콜도 많다.

벼 종자 개발과 기술혁신으로 단기간에 식량 자급을 했고 이제는 식량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했다. 2018년부터 해마다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원조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농업외교는 빛을 발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6월 외교부와 합동으로 중남미에 농업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기술 협력외교를 펼쳤다.

역 협의회, 아프리카 지역 7대국은 ‘한-아프리카 지역협력체’, 중남미 5개국과는 ‘한-중남미 협의회’로 발전했다.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뉴 프런티어’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화봉사단(Peace Corps)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평화봉사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보도 새퍼 명언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 고사성어 / 주백약지장(酒百藥之長)
“술은 모든 약 가운데 으뜸이라는 말.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 편에 나온다.

☆ 시사상식/ 폰지사기(Ponzi Scheme)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

☆ 신조어 / 알잘딱깔센
인터넷 1인 미디어에서 유행하게 된 말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를 줄여서 표현한 말.

☆ 유머 / 남편의 진심
해변에서 마주친 미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남편의 팔을 꼬집으며 아내가 물었다.

☆ 유머 / 남편의 진심
해변에서 마주친 미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남편의 팔을 꼬집으며 아내가 물었다. “저 여자와 내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 남편의 대답. “당신은 요즘 수영 배우고 있잖아!”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뜨겁다.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소식만으로 아파트 호가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뛴다.

리모델링 시장이 이렇게 커진 데에는 정부 공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을 꾸준히 강화했다.

같은 조건이면 낡은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 욕구를 무작정 누르려 드니 아파트 빼대는 남겨도 속이라도 새 아파트로 바꾸는 리모델링이 대체재로 부상했다.

기저수첩

박종화 부동산부/pbell@



리모델링 시장 ‘재건축 규제 실패’ 그림자

문제는 국토교통부 등이 리모델링 사업도 백안시한다는 점이다. 수직증축(꼭대기 층에 2-3층을 더 올리는 방식)과 수평증축(기존 건물에 새 건물을 덧대 옆으로 확장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 중 사업성이 더 좋은 것은 수직증축이다.

다. 주택 공급에 골머리를 내는 정부로서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다. 이런 장점에도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중 수직증축을 하려는 곳은 거의 없다.

철거 없이 수직증축을 하면 집이 동굴처럼 앞뒤로만 긴 기형이 된다.

국토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 안전성을 검토할 용역을 발주했지만, 지난해에야 결과를 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서랍 속 연구보고서는 먼지만 쌓여 가고 연말 발표하겠다는 담당자는 자리를 떠났다.

이슈&인물

팬데믹 장기화에 금융 리스크 비상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가계부채 ‘총량·속도·질’ 모두 문제”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 문제의 크기와 악화 속도가 가능하기 어렵다. 주택·주식 등 자산시장으로의 풀림 현상으로 빚이 크게 늘어났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금융당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최고치에 달했던 7월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리스크연구센터를 신설했다. 가계부채와 자산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놓고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총 9명의 연구원이 거시경제, 가계부채, 기업부채, 자산시장 등 금융 관련 모든 리스크를 연구한다. 초대 센터장은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그는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센터의 수장이 되기보다는 구성원의 일인으로서 ‘책임이 좀 더 많은 총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며 “동료들과 협력해서 우리나라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을 잘 식별하고, 경제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계신호를 보내고, 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계부채 시장실태, 정부 개입 적절

신 센터장은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는 심각한 경제·금융적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사회·보건의 위기로 판단했다. 그는 “경제 내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는데 막대한 가계부채 누적과 주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 과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선제적 조정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등 양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됐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자산가격이 거품이 형성된 것으로 봤다. 신 센터장은 “선진국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주로 정부부채를 동원한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신용등급들은 정부부채와 민간부채를 망라한 총체적인 부채 누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IMF에서 신용등급 부채에 대한 경고가 나왔는데, 현 상황에서 미연준이 통화정책을 전환하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 압박이 불가피하다”며 “현 상황에서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진행되면 IMF의 경고와 같이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일부 선진국에서도 긴축발작 및 위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현재 총량 규모, 증가 속도, 부채의 질 측면에서 모두 문제로 팬데믹으로 인해 부채 확대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까지 겹쳤다”면서 “당장 위기로 전이되지는 않겠지만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금리의 장기화와 금융기관의 안전 위주의 대출 관행, 자산가격 급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안전 위주의 대출 경향은 확실한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리는 원인이 됐고, 정보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공격모기지 공급 증가도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가 돈을 빌리기 어렵게 총부채원리금상환(DSR)비율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정책모기지,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한 생계형 대출수요 증가도 가계부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계부채를 시장

심각한 경제·금융위기는 아니지만 가계부채 누적·자산시장 과열상태 지금이라도 선제적 조정 해나가야

저금리 끝, 이제 인상 시작단계 기준금리 1.25%까지 버틸 수 있어 추가인상, 신호·폭·속도가 중요

부동산 풀림 포트폴리오 다변화 MZ세대 주식열풍 긍정적이지만 상황능력 넘는 빚투·영끌은 안돼

말린 결과 자금의 과도한 풀림이 발생하는 등 버블이 일어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하는 것은 내용을 떠나서 시기 상으로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집값 잡기, 통화정책만으로 불가능

신 센터장은 “주택가격 급등 등 금융 불균형이 아니라도 거시경제 여건만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명분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가격 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임계치 수준을 넘어야 가능한데 0.25%포인트 가지고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팬데믹 발생 이전 기준금리가 1.25%였고, 그 당시에도 최저금리라고 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팬데믹 발생 이전 정도의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인상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앞으로의 금리정책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향후 추가 인상의 신호, 인상의 폭과 속도가 더 중요하다.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는 것은 경제에 무리한 충격을 줄 수 있어 거시경제성 대책과 조화를 이루어 점진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연도 야기 지 않았다. 집값을 잡는 문제가 통화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 당국 간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신 센터장은 “현재 국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규제

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동산정책, 재정정책과 함께 정책당국 간 정책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속도 조절도 필요한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에게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이면서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정책은 집값에 대한 잠재수요자들의 기대(expectation)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및 가수요 관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차단하는 방안을 지속하면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측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주택공급전략 수립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가상자산, 리스크 큰 것만은 분명

신 센터장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통칭)에서 일고 있는 주식 열풍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포트폴리오가 전부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좋지 않은 현상”이라며 “젊은 세대의 주식투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같은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신 센터장은 “과거 경험한 모든 자산 버블 붕괴 위기의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현재 경제·금융 상황은 그 막바지 국면의 중간쯤 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현 국면은 MZ세대들이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자기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몰라도 빚투를 하거나 영끌을 해서 낼 수 있는 자산수익률이 미미한 수준에 와 있는 반면,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황능력범위를 넘어서 빚을 내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그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이라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내재 가치가 확실하지 않아 리스크가 큰 것만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통화나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실체가 불분명하지 않은 만큼 가치 판단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는 “모든 시장은 깊이가 있고 두께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 주식시장의 경우 진폭이 있고 실적 같은 확고한 가치가 뒷받침이 되는 데 반해 가상자산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허구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라 내재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사설

대기업 ‘수소동맹’, 정부는 종합지원 나서야

국내 대기업들이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뭉치는 ‘수소(H₂)동맹’을 맺었다. 15개 대기를 회원을 하는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이 8일 출범했다. 현대자동차와 SK, 포스코가 주도하고 삼성,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코오롱, 일진 등도 참여했다.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은 앞으로 회원사 간 수소협력 사업, 해외 수소기술 및 파트너 공동 발굴, 정책 제안 및 글로벌 수소 어젠다 주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협업으로 국내외 수소 공급과 수요, 인프라 영역의 공급망을 선점하고, 차세대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목표다.

기대가 크다. 수소는 전 세계의 공통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소후 에너지와 물만 발생된다.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 우려도 없다. 미래의 수소산업 성장성에 주목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이 수소경제 로드맵을 세우고 앞다투어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아직 수소를 얻기 위한 에너지 투입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으로 불확실성이 없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오는 2050년 세계 수소경제 시장이 2조 5000억 달러 이상(30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

다. 현대차와 SK, 포스코, 롯데, 한화, 효성 등 주요 관련기업들이 수소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 등의 설비 및 인프라, 기술개발 등 투자자로 한 금액은 2030년까지 50조 원에 이른다.

앞으로 국내 수소산업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산업영역이 맞물리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얽힌 수소경제이고 보면, 개별기업의 도전을 벗어난 기업 간 협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소동맹의 역할과 기능이 커져야 할 이유다. 우선적으로 투자와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공동투자를 통한 해외 청정수소 공급기반 확보, 공급과 활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기술 조기 개발 등을 위해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는 협력이 중점 과제로 꼽힌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뒤처진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분야에서는 강점과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도 많다. 이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미래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민간기업들의 수소동맹이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뒷받침이 더 없이 중요하다. 정부가 손가락 없는 식이 아니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제 구축으로 정책·제도·금융 인프라 등의 과감한 지원,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철폐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 톨



넌 어디서 왔니?

늦여름 어느날 도립천역을 들어가던 청설모 한 마리. 도심에서 보기 어렵기에 시민들이 호기심을 보이자 부리나케 역사를 돌아 나선다. 먹이를 찾아서였을까, 인근 안양천변에 살던 녀석이 그만 길을 잘못 든 것 같다. 과거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은 하수처리장 준공 및 정화활동으로 수질 개선이 이뤄져 흰뺨검둥오리와 맹꽁이 등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SAMSUNG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럼 늦은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실수해도 겁낼 필요 없는 BESPOKE 인덕션 공간에 꼭 맞춰주는 BESPOKE 냉장고 & 식기세척기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BESPOKE 그랑데SM 우리의 시간을 특별하게 The Premiere
나도 모르게 겁이 나오 꼭 붙들어줘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시간



믿을 수 있는 BESPOKE 큐브SM Air 반할 수밖에 없는 BESPOKE 에어드레서 너무 멋져 보이는 BESPOKE 무풍에어컨
나는 당신을 믿을게요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멋져 보여요



그대처럼 작품같은 TV The Frame 반할 만큼 깨끗하게 BESPOKE 제트 후회 없는 시간을 위한 더플레이트 인덕션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처음 사랑한 집
우리가 처음 사랑한 가전
삼성 신혼가전



비스포크 웨딩 클럽
가구·예물부터 신혼가전까지
놀라운 혜택을 한번에!
삼성닷컴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가입기간: 21.08.01~21.10.31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 참고



가전을 나답게.